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36697

2008년 8월

석사학위 논문

# 한국과 러시아간 문화교류의 과제와 협력방안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러 시 아 학 과

지 승 희

# 한국과 러시아간 문화교류의 과제와 협력방안 연구

*-Assignment of Culture Exchange and Cooperation Way Research between the South Korea and the Russia -*

2008년 월 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러 시 아 학 과

지 승 희

# 한국과 러시아간 문화교류의 과제와 협력방안연구

지도교수 김 수 희

이 논문을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월 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러 시 아 학 과

지 승 희

# 지승희의 석사 학위 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2008년 5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 목 차

제 1 장 서 론 ……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 1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제 2 장 한·러 문화교류의 추진배경과 목표…… 6
제 1 절 국가간 문화교류의 의의 …… 9
제 2 절 한국의 대러시아 문화교류 추진배경과 목표 …… 14
제 3 절 러시아의 대한국 문화교류 추진배경과 목표 …… 18

제 3 장 한·러 문화교류와 우리의 과제…… 22
제 1 절 한·러 문화교류의 역할과 의미 …… 22
제 2 절 한·러 문화교류사업과 효과 …… 25
1. 한 · 러 문화교류사업의 실태 …… 25
2. 한 · 러 문화교류사업의 문제점 …… 37

제 3 절 우리의 한·러 문화교류의 과제 …… 40
1. 문화교류지원 확대 과제 …… 41
2. 한국기업의 문화전략 및 문화상품 개발 과제 …… 46
3. 민족문화 이해의 확대 과제 …… 51

제 4 장 한·러간의 관계강화를 위한 협력방안…… 60
제 1 절 인적교류의 측면 …… 61
제 2 절 전시 · 공연예술교류의 측면 …… 64
제 3 절 과학기술(문화컨텐츠산업)교류의 측면 …… 66

제 5 장 결론 …… 72

참고문헌 …… 75
부록 …… 82
ABSTRACT…… 88

- 표 목 차 -

1. 한국예술가들 및 작가들의 소련/러시아에서의 활동 ····· 28

2. 소련/러시아예술가들 및 작가들의 한국에서의 활동 ····· 28

3. 1994.1~1997.11기간 한· 러 문화· 예술교류현황 ····· 29

4. 한· 러 공연예술단체 교류현황-2005년 기준 ····· 29

5. 한국과 러시아의 국제교류 도시 ····· 32

6. 러시아 국민성에 관한 설문 ····· 54

7. 한· 러 사회문화교류 현황-2005년 기준 ····· 61

- 부 록 -

1.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 연방 정부간의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1992년11월19일) ····· 82

# 제 1 장 서론

## 제1절 연구목적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개된 이념적 대결구도에서 마침내 1990년대 초 사회주의제 국가들이 붕괴됨으로서 자유주의적 자본주의(liberal capitalism)시대를 열게 되었다. 이 같은 인류환경의 변화 속에서 세계적 상황 및 사건의 이해 및 조망예측을 위해 마련된 일개 패러다임(paradigm)으로써 신자유주의(neoliberalism)가 자리 잡게 되었다. 아울러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21세기의 세계적 환경 속에 진보, 평화, 그리고 번영이 인류의 주 관심대상 및 성취목표로 구체화 되었다.

한편 신자유주의는 현실주의의 속성인 민족적 이익 극대화 노력을 포기한 상황에 이르지는 못했다. 단지 보다 개인적 권리 신장과 풍요로운 세상창조를 위해 자유주의에 입각한 민주적 지배, 여론, 대중교육, 자유교역, 자유상업기업, 국제법과 조직, 군 통제와 무장해제, 집단안보 및 쌍무외교, 그리고 도덕적으로 고무된 치국책이 인류의 생활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방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시 말해, 국가간의 상호의존적 관계형성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개개인의 진보와 번영에 필요한 공동체 형성을 보편적 가치로 존중하고 있을 뿐이다.[1)]

이 같은 맥락에서 근래 국가 간의 문화협력 및 교류가 더욱 확대 강화되고 있다. 이는 국가간의 문화적 유대 강화가 국가 발전과 국가 위상을 결정짓는 핵심요소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즉, 국내총생산이나 군비, 인구규모와 같은 양적인 작시법에 의한 국력제고 수단을 지칭한 과거의 hard power[2)]보다 soft power[3)]가 국력강화의 방도로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

1) 김수희, "동북아 공동체 구축과제와 북한 핵 간의 상관성", *통일문제연구,* 조선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제20권 제2호 2005, pp. 22-23.

2) 이것은 군사력과 같은 유형적인 국가자산을 통한 세계정치에서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능력을 말한다. Kegley, Chafles W. & Wittkopf, Eugene R. (ed.), *World Politics: Trend and Transformation*, Macmillan Press LTD, 2001, p. 462.

3) *Ibid.*

soft power는 경제적인 경쟁이 군사적 경쟁 보다 민족국가의 힘과 인류의 안전에 점증적으로 보다 결정적 요소가 될 것이라는 신자유주의적 사고이다. 따라서 이들은 국가적 안보의 경제적 기반들이 세계화의 제 조건하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수용토록 했으며, 또한 국가의 잠재력이 군사적 지출과 병력의 수보다 기술에서의 제 진모와 사회 및 경제적 제 거래의 증가들이 새로운 세계를 지도하게 될 것이란 주장이다. 여기서 표출된 경제력 및 기술력이 지닌 본질이 바로 문화력이며, soft power의 대표적인 상징물인 것이다.[4] 이렇게 문화력이 국력 신장의 수단으로 부상함에 따라 문화경쟁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고도문화 수용 및 국가간의 관계 강화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특히 러시아는 공산체제에서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의한 사회적 생산력을 동원해온 관례에 따라 문화력을 통한 국력과의 위상강화의 목적으로 문화교류를 수단화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와의 교류확대 목적에서도 폭넓게 사용되어 왔다.

문화란 민족적 제 성취 및 창조의 총화로서 일정한 역사와 지리적, 그리고 기회적 요인에 의해 얻어 지며, 궁극적으로는 공동체의 생존 및 번영수단으로서의 용도를 지닌다. 문제는 각기 공동체 마다 상이한 자연조건과 역사 및 종교, 그리고 대중적 정신의 차이로 인해 이질적이란 것이다. 고로 국제사회에서 상이한 문화국들간에 원활한 교류를 결정 짖는 요인은 문화적 동질성의 공감대 폭과 이해(interest)의 불가피성이 작용된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본고는 우리나라와 러시아간의 미래 지향적 관계형성 및 증진방도의 효율성을 찾기 위해 문화적 요인을 분석대상으로 삼으며, 과거 양국 간의 교류패턴을 찾아 보다 나은 진로 모색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자연적 조건 및 역사적 교훈에 근거하여 국방을 최우선시해온 나라이다. 따라서 hard power육성에 국가적 자원을 집중시켜 왔던 러시아는 hard power육성으로 인한 균형발전의 미성취로 국민적 불만족이 폭발함에 따라 체제붕괴를 맛볼 수밖에 없었다. 이를 계기로 새롭게 태동한 소위 민주 러시아는 soft power강화를 통해 생존과 번영의 길을 찾게 되었고, 타 국들과의 교류증진 목적에서 타국 문화의 이해 및 유대관계 강화를 통한 협력의 길을 모색하게 되었다.

---

4) Sang-min Han, "Inter-state Tensions in Northeast Asia and Soft Power : Recommendations for Territorial and Historical Disputes", 고려대학교, 2006.8. p. 44.

이 같은 변화의 틀 속에서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전반적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문화적인 교류도 점차로 빈번해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현재 한· 러 동반자관계의 발전에 발맞추어 러시아의 문화가 한국에 소개되는 기회가 많아진 것은 자연스런 흐름이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문화교류의 이면에 잠재하고 있는 국익추구 목적으로 인해 국가간의 교류가 역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상호 협력의 측면에서 러시아는 석유와 가스 등의 천연자원의 부국이자 냉전 이후에도 국제사회에서 커다란 외교적 영향을 가지고 있는 국가일 뿐만 아니라, 음악과 미술 등 문화부문에서도 세계 정상급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문화강국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러한 문화강국인 러시아와의 문화교류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마음으로부터 느끼며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문화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부가적으로 경제적인, 기술적인 측면에서 또한 상호의존적인 관계형성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soft power가 21세기 국력강화의 최선의 방법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1990년 한국과 러시아간의 수교와 1992년 양국 간의 문화교류에 관한 협정과 더불어 상호의존적 관계형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문화가 갖는 비중과 세계화시대에 한국과 러시아가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문화교류의 중요성과 확대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그리고 현재까지 이루어졌던 양국의 문화교류현황을 통해 문화교류 패턴을 파악하여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양국의 문화교류발전을 위한 우리의 과제와 향후 어떤 방향으로 교류를 이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협력방안을 찾고자 함에 있다.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지금 우리는 경쟁, 효율, 시장, 세계화가 강조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세계화(Globalization)의 확산 근거는 규모경제를 통한 산업발전 및 경제성장이며, 또한 이를 통해 기술이전, 고용증대, 소득증대, 평화정착을 기대할 수 있다는데 있다. 더욱이 세계화가 과학기술 문명, 자유시장 원리,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향함에 따라 정치적 상황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세계화, 정치적 민주화 및 자유화는 연계개념이란 점에서 민주러시아의 지향가치와 일치한다. 낙후된 경제 및 정치적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긴요하다. 이는 옐친 정부와 푸틴 정부에서 실증적으로 증명되었다. 이 같은 러시아의 필요성에 따른 진로의 선택으로 인해 우리와의 전반적 관계증진을 이룩했으며, 근래 동반자 관계로까지 진전되었다.[5)]

이 같은 시대적 상황과 러시아의 세계화적 가치수용 추세 속에서 본고는 신자유주의 접근방법을 적용할 것이다. 이는 세계화의 지향가치에 의거 대내외 정책변화를 이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가들 간의 상호의존적 관계 강화를 통해 목적가치를 최대화 할 수 있다는 공감대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접근에 따른 국가간의 환경조성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통합(economic integration)요인이다. 이는 교역, 해외직접투자, 유가증권 형(portfolio-type) 자본의 유동, 투자수입 지불 및 수령에 의한 통합형태이다. 둘째로 개인적 접촉(personal contact)요인이다. 이는 국제적 여행, 전화, 송금에 의한 개별적 인간관계 형성을 말한다. 셋째로는 기술적 연결(technological connectivity)요인이다. 이는 고도로 발달된 의사소통 수단에 의한 인터넷 사용자들, 인터넷 운영자들 및 보안 근무자들 간의 연결결과가 세계적 통합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네 번째로는 정치적 약속(political engagement)이다. 즉, 국가간의 교류가 형성, 유지, 확대 및 지속되기 위해서는 신뢰의 바탕위에서 관리기관의 지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적 제 기구의 회원들, UN 평화유지책무 목적의 인력 및 재정적 지원, 다자적 조약의 제 비준들, 정부적

5) 김수희, 『세계화와 우리의 진로』, (광주 : 조선대학교출판부), 2006, pp. 1-2.

신용 및 차변의 이전들로 요약되는 노력 및 제도적 틀 속에서 세계적 통합이 이루어져야한다.[6] 이들을 전제로 양국간의 조치들이 이행되어 왔으며, 향후 보다 보완될 조망이다.

분석적인 측면에서 신자유주의 접근의 측정성분에 대한 제시이다. 다시 말해, 러시아의 세계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성분이 측정될 예정이다. 이들은 개방, 흐름, 수렴요소들이다. 첫째, 개방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적 측면이 중시되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 측정 시 사용되는 대상들은 정치적-제도적 개방, 하부구조적 개방여부와 정도이다. 둘째, 흐름은 국제사회체계에 대한 전방위 개방을 통한 흐름(교환)의 가능성과 현실을 파악하는 것이다. 구체적 측정대상들은 자본, 인력, 재화, 정보, 이상의 흐름이다. 셋째, 수렴은 선진기술 및 문화적 견지에서 결과한 수용조건을 파악하는 것이다. 아울러 측정목적으로 사용되는 대상들은 기술적 조화, 사회적 조직, 대중문화, 규범이다. 따라서 본고는 이들의 세계화적 이전여부를 선진적 수준과 후진적 수준간의 비교를 통해 상호간의 밀착 정도를 파악 및 분석할 것이다.[7]

상술한바와 같이 본 연구는 신자유주의[8] 사고에서 세계화 추세의 정도 측정에 따른 한국과 러시아간의 공감대 형성 정도파악 및 교류의 수월성 여부분석을 통한 협력방안을 찾아내는데 있으며, 교류 및 협력분야를 문화부문에 한정하여 다룬다.

본 연구의 절차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동서냉전의 붕괴 이후 조성된 새로운 세계적 환경변화 속에서 인류가 지향하는 가치의 변화 속에 생성된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의 본질 및 분석방법 소개, 그리고 이를 토대로 국력증강방법으로 일반화된 soft power의 본질 소개 및 soft power의 일개 구성 요소로서의 문화교류가 갖는 중요성 강조에 역점을 두었다. 아울러 실행적 측면에서 양국 간의 문화교류에 관한 협정과 더불어 교류협력을

---

6) A. T. Kearney, "Measuring Globalization: Economic Reversals, Forward Momentum," *Foreign Policy*, March-April 2004, http://www.foreignpolicy (accessed by the author April 1, 2004). 김수희, *op. cit.,* pp.17-18

7) *Ibid.,* p. 18.

8)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에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 초에 발생한 동구 공산당의 붕괴현상을 목격하고, 이의 분석을 통해, 세계화가 '역사의 종말'을 야기 시켰다고 보고 있다. 김수희, 『세계화와 우리의 진로』, (광주 : 조선대학교출판부 ), 2006, p. 20.

통한 문화교류의 중요성과 확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러시아가 추구하는 대외적 목표를 이해하며 현재까지 이루어졌던 양국의 문화교류들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양국의 문화교류발전을 위한 우리의 과제와 협력방안을 찾고자 하는 연구의 목적과 어떤 방법으로 연구 할 것인가를 기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국가간의 문화교류의 의의를 확인하고, 한국과 러시아간의 문화교류가 어떠한 배경하에 추진 되어왔으며 그 목표는 무엇인지 규명한다.

제3장에서는 양국가간의 문화교류의 역할과 의미를 알아보고 , 각 국가에 소개된 문화교류사업의 실태를 통해 양국의 문화교류 패턴을 파악하여 그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인지 제시한다. 또한,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양국가간의 문화교류를 개선하고 증진하기 위한 우리의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제시를 한다.

제4장에서는 한국과 러시아의 문화교류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양국 간의 문화교류를 진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제5장 결론에서는 양국 상호간의 진로에 관한 조망을 예측하였다.

# 제 2 장 한·러 문화교류의 추진배경과 목표

전체주의(Totalitarianism) 개념으로 설명되어 온 스탈린 체제의 특징은 공산체제의 전형이다. 국가가 전 사회를 통제하며, 공산체제가 지향하는 궁극적 목표인 공산주의 사회건설을 위해 물적 및 인적 자원을 동원해온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동원의 효율성을 목적으로 예술문화가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접목되어 활용되었다. 그러나 스탈린 사후 초기 공산정권의 브랜드 마크인 전체주의가 변화의 길을 밟기 시작했으며, 이에 병행하여 문화적 활동범위도 변화되어 대외적 활동을 추가하게 되었다.

공산체제 변화의 설명에 권위자인 로웬탈(RichardLowenthal)의 설명에 의하면 공산체제의 2중적 목표에 기인한다는 주장이다. 즉, 궁극적인 목표(final goal)와 이전적 목표(transfer goal)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언급된 궁극적 목표는 공산

주의적 유토피아(Utopia)를 의미하며, 이전적 목표는 근대화(Modernity)를 의미한다.[9] 이는 소련이 전 산업발전 단계에서 볼셰비키혁명을 이룩했으며, 자본주의 제국들에 포위된 상황에서 정권을 유지하는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낳은 결과였다.

스탈린에 의해 추진된 산업화 결과로 인해 사회적 환경이 서구 사회와 유사하게 변화되었다. 즉, 공업화 결과로 숙련노동자, 지식계급, 교육된 관료, 기술지식인과 같은 중산층은 서구사회의 대중처럼 세속적이며 과학적 태도와 개성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중산층은 테러의 종결과 정직한 직무이행에 따른 적절한 보상 및 선진기술을 제공받길 원했다. 이 같은 결과가 변화의 요인이며, 결국 1956년 평화공존정책 표명을 통해 서방세계와의 대결구도를 누그러트리고, 교류의 문호를 열기 시작했다. 더욱이 대중의 소비재 욕구불만으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 및 정치적 불안정에 따른 1966년부터의 브레즈네프-코쉬긴의 이윤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개혁, 그리고 고르바쵸프시대에 나타난 개혁개방에 의해 체제변화노력은 대중적 욕구충족을 통한 체제수호에 초점을 둔 것이었다.

급기야 1991년 공산당의 붕괴와 더불어 새로이 태동한 민주 러시아의 기본 진로는 경험적 바탕에 의거 한 서구화였다. 이는 자유주의적 자본주의(Liberal Capitalism)가 과거의 상황을 탈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즉,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의 방도로 일반화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1990년대 초의 세계적 환경은 냉전의 종결과 더불어 진취적 사기업의 활동이 두드러졌으며, 세계인들의 욕구 역시 자유역량의 확대와 풍요로운 사회 조성을 통한 번영을 갈망한 것이다. 이는 신자유주의의 확산을 말하는 것이며, 러시아 역시 외면할 수 없는 질서였다.

신생 러시아는 국가건설(state building)과 국민건설(nation building)과정을 거쳐 헌정질서를 수립했으며, 신자유주의에 토대를 둔 대외정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선제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며, NATO를 적대시하지 않으며, 모든 국가에 문호 개방을 선언했다. 그러나 문제는 마음을 열고 국가간에 선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긴요한 수단이 문화교류란 점에서 활용을 높였으며, 대내적으로는 러시아적 정

9) Richard Lowenthal, "Development vs Utopia", Chalmers Johnson(ed.), *Change in Communist Systems,*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0, pp. 50-54.

체성 부활을 통한 결속력을 증진시켜 나갔다. 여기서 엘친통치기에 공산 및 민족세력에 의해 발의 및 통과된 전통종교법은 자존 및 정체성 유지노력을 반영한 사례이다.

러시아는 낙후된 경제환경을 개선하고,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세계화 물결에 뛰어들게 되었고, 국제적 선린 우호관계 개척 및 증진노력을 통한 전방위 협력 증진책으로 문화교류가 병행 추진되어야 했다. 우리나라 역시 1990년 외교관계개설을 통해 관계를 시작한 상태에서 상호 국민들 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문화교류는 기본사항으로 받아 드리게 되었다.

문화의 세기'인  현 세계를 보다 열린 마음으로 인식하고, 현 세계가'지구촌(golbal village)'이라는 인식을 갖기 위해 근래 국가 간의 문화협력 및 교류가 더욱 확대 강화되고 있다. 이는 국가간의 문화적 유대 강화가 국가 발전과 국가 위상을 결정짓는 핵심요소로 인정받고 있으며, 국가들 사이의 세계가 대결의 세계 또는 단순한 상호연결(interconnectness)의 세계가 아니라 상호의존(interdependence)의 세계로서 세계적 환경 속에 진보, 평화, 그리고 번영이 인류의 주 관심대상 및 성취목표로 구체화되었음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hard power육성으로 인한 균형발전의 미성취로 국민적 불만족이 폭발함에 따라 소련이 붕괴 된 후, 폐쇄적이었던 러시아의 사회는 급격히 개방되어 soft power강화를 통해 생존과 번영의 길을 찾게 되었고, 타 국들과의 교류증진 목적에서 타국 문화의 이해 및 유대관계 강화를 통한 협력의 길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 같은 변화의 틀 속에서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전반적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문화적인 교류도 점차로 빈번해지게 되었다.[10)]

상호 협력의 측면에서 러시아는 석유와 가스 등의 천연자원의 부국이자 냉전 이후에도 국제사회에서 커다란 외교적 영향을 가지고 있는 국가일 뿐만 아니라, 음악과 미술 등 문화부문에서도 세계 정상급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문화강국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러한 문화강국인 러시아와의 문화교류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

10) 소련이 붕괴될 즈음 인구는 2억 8000만 명이었는데 국경을 넘어 외국으로 나가고, 또 들어온 총인원은 1991년 약 500만 명이었고, 이들은 대체로 정부와 관계된 일들로 외국을 다녀왔다. 그러나 1996년 외국을 다녀온 총 인원은 약 6,000만 명이었고(출국과 입국의 양 방향 모두 집계), 이것은 약 1억 5000만 명인 인구의 20%에 해당된다. 문수언. "러시아 푸틴 정부 대외정책의 새로운 경향과 자유주의 패러다임의 접근", 『國際政治論叢』제46집 1호, 2006, p. 314.

하고 마음으로부터 느끼며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문화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기술적인 측면에서 또한 상호의존적인 관계형성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국가간의 국제문화교류의 일반적인 개념과 형태를 정리한다. 그리고 국제문화교류의 의의와 범위, 국제문화교류를 실천할 때의 일반적인 목적과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 한국과 러시아의 문화교류 추진배경과 목표에 대해서 알아본다.

## 제 *1* 절 국가간 문화교류의 의의

문화의 개념을 규정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며 광범위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문화의 어원인 “cultura”는 고대 라틴어로써“토지의 경작”을 의미했다. 그 후 “cultura”는 키케로(Cicero)의 저서에서 “cultura animi”란 표현으로 확대되어 “가공 및 경작, 정신의 완성”이란 의미로 변했으며, 최근에는 로마 및 다른 언어들에서 “문화”라는 말은 다양한 유사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즉, “교양”, “교육”, “수완”, “존중”, “발전”등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근대 용어들 속에서 문화는 통상 다음과 같이 이해되고 있다. 첫째, 어떤 민족의 제성취 및 창조의 총화, 둘째, 일정한 역사, 지리적 그리고 기회적 요인에 의한 인간의 일치(구석기 문화, 봉건문화, 그리스-마케도니아 문화, 프랑스 및 한국문화, 심지어 나쁜 문화도 포함), 셋째, 어떤 인간활동 영역에서의 완성수준(언어문화, 노동문화, 행동문화 등), 넷째, 어떤 농작물의 형태(참외류, 곡초류, 감귤류 등)이다.[11]

오늘날의 문화 과정은 야만 시기부터 문명 시기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자연을 지배하고 순화시키면서 자신의 이상을 실현해 가는 과정에서 얻어낸 철학, 과학, 예술, 종교, 사회, 경제와 같은 모든 산물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고 있다.[12] 크게 보면 정신과 물질을 모두 아우르면서 인간이 이룩한 총체적인 삶의 결과라는 뜻으로 넓혀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문화’라는 말은 서양의 다른 개념어들과 마찬가지

11) 김수희, 『러시아문화의이해』, (서울 : 신아사), 1998, p. 9.

12) 한국철학사상연구회 편, 「철학대사전」, 동녘, 1989. pp. 411~412.

로 19세기 말 일본사람들이 culture를 문화로 번역해 쓰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쓰인 개념이다. 따라서 주된 의미에는 문화 개념의 서구적 발전과정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지만 인문학적 사유에 기반을 둔 동양 전통적 사고 또한 함께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13)]

문화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 그리고 사용되는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윌리암스는 문화의 개념을 생활양식, 지적·심미적 활동, 상징체계로 이해하였으며, 소스비는 문화재의 특성에 대해"창작과정에서 창의성이 있고, 지적 재산권의 형태를 구현하며, 상징적 의미를 전달하고,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문화적 가치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19세기 인류학자 타일러는 문화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간이 획득한 지식, 신념, 예술, 도덕, 법, 관습 그리고 다른 능력 및 습관"이라고 규정하였다. 윌리암스와 소스비가 언급한 문화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의 개념을 '생활양식으로서의 문화' 와 '지적·정신적·예술적 산물로서의 문화'와 '상징체계로서의 문화'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한 바 있다. 그가 말한 '생활양식으로서의 문화' 개념은 주로 문화인류학과 사회학에서 활용되는 용어로 문화정책의 궁극적인 대상이자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지적·정신적·예술적 산물로서의 문화'는 문화의 개념을 창의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문화산물로 본 것으로 전통문화유산, 예술, 문화콘텐츠 등이 모두 이 범주에 속하며, 문화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상징체계로서의 문화' 개념은 문화가 상징적 의미를 창출하고 이를 공유하는 과정과 밀접한 연관이 되며, 예술작품이나 문화콘텐츠와 같은 문화산물은 모두 생활세계를 상징적 의미로 재해석해낸 생활세계의 한 표상이자 문화적 정체성을 담은 것을 말한다. 상징적 의미를 매개로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이 이뤄진다는 특성에 의해 문화정책 영역에서는 문화는 국가의 이미지와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자 중요한 정책영역으로 간주되며 이처럼 상징적 의미를 창출하고 수익을 내는 대표적인 산업이 문화산업인 것이다.

문화교류의 내용이자 대상으로서의 '문화' 역시 오늘날 그 범위가 '전통문화', '문화유산', '기초문화예술'에서 '현대 생활문화' 와 '문화콘텐츠', '대중문화', '디지털기술' 등으로 대폭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

13) O. Spengler, ***Der Untergang des Abendlandes***, Bd. I. München 1920, S.29.
<<김영근. "문화의 개념에 관한 체계적 고찰-문화인간학적인 측면에서의 고찰" ,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3) p. 75.>>

그렇다면, 문화교류란 무엇인가. 과거 국가 간 일방적 의존관계를 표현하던 "종속(dependency)"이라는 개념은 퇴색화되고 있으며, 이제는 국가 간 쌍방간 상호협력을 의미하는 "상호의존(inter-dependent)"이 국제사회의 성격을 표현하고 있다. 즉, 문화교류란 국가 간에 인적교류와 접촉을 통해 쌍방향으로 상호 문화를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0세기 들어 국가 간의 문화교류는 사실상 서구 열강들이 제국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혹은 자신들에 대한 호감을 사고 이를 바탕으로 우방을 얻고자 전개한 정책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문화영역을 통하여 상호이해를 추구하고 이로써 자국의 문화를 풍부하게 하기 위한 국가 간 교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14] 따라서 현재에는 완성된 예술 작품을 전시하거나 공연하는 고급예술뿐만이 아니라 학술, 관광, 체육, 청소년 분야, 문화산업 등 확대된 문화 영역에서 유기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겠다.

교류는 보통 국제간의 경제적 격차가 거의 없거나 아주 적은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 선진국 상호간에서도 많이 이루어진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때 러시아는 모라토리엄을 선포하여 우리나라보다 못사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 하지만 러시아의 경제는 매년 성장하고 있으며 세계경제로의 통합을 추구하고 있다. 세계화의 측면에서 볼 때 여전히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지닌 국가가 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러시아는 조만간 경제를 회복하고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 설 것으로 보이므로 한국과 러시아간의 문화교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외교통상부에서는 국제문화교류는 "우방 제국과의 문화 · 학술 및 체육교류에 의한 상호 친선과 유대 강화, 한국 문화재 및 예술작품의 해외전시와 전통 · 예술 공연단의 해외 공연, 문화 사절단의 파견, 문화관계 인사 초청 및 행사 유치를 한국문화 소개와 국가이미지 제고"라고 정의하고 있다.[15]

문화교류는 교류에 의하여 문화요소가 이동하거나 교환되는 양상과 활동을 의미하는 경우와 서로 다른 문화 사이의 교류를 의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문화교류는 국내, 국외 모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양상이다. 또한 국제 문화교류라는 용어는 서

---

14) 김지영, "한국 대외문화교류정책의 흐름과 특징-한국문화 C.I. 사례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8).

15) Kimiko Otani. "한국정부 국제문화교류활동의 성격:한국국제교류재단을중심으로(1991-2001)",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3.8), p. 6.

로 다른 나라나 문화 사이에서 멀어지는 거의 모든 양상과 활동을 지칭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보다 한정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국가간 문화교류란 국제교류라 불리는 활동 및 현상의 하나로서 이해될 수 있으며 사람들이 국경을 가진 국가에 의해 나뉘어 있으면서도 국경에 의해 서로 완전히 격리되어 있지 않다는 정황에서 발생하는 문화교류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교류'란 '문화나 사상 따위가 서로 오가며 섞이는 것' 이자 '서로 교체되는 것'이라는 국어사전의 보편적 정의에서 보여지 듯, 교류는 쌍방적 흐름을 전제로 한다.

상술한 바를 종합해 볼 때, 국제 문화교류는 '국제교류'라 불리는 활동 및 현상의 하나로서 사람들이 국경을 가진 국가에 의해 나뉘어 있으면서도 국경에 의해 서로 완전히 격리되어 있지 않다는 정황에서 발생하는 문화교류이며, 상대성을 갖는 쌍방의 흐름을 전제로 한다고 정리한다.

일반적으로 국제 문화교류 활동을 다음 여섯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인적 교류사업이다. 국제 문화교류를 통한 상호이해의 촉진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의 직접적인 접촉이다. 인적교류는 국민간의 정신적 연대를 조성한다. 사람은 교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 문화교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된다.

둘째, 자국어 학습과 자국에 대한 해외 연구활동의 지원이다. 언어는 수단이자 문화의 표현이며 국가의 문화적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그러므로 자국의 언어가 국제적으로 보급되는 것은 물리적 이익과 함께 국가의 위신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한편 자국에 대한 연구는 자국의 내실에 대한 종합적 및 다면적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자국에 대한 연구는 상대국에서 영향력 있는 지식층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본 국제 우호친선 증진의 가장 기초적인 형태이다.

셋째, 각종 전시와 공연 예술의 해외파견 및 국내 유치이다. 자국 예술의 전시를 통하여 각 나라는 자국의 문화적 번영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으며 언론 보도로써 상대국의 대중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넷째, 문화 및 역사 도서의 제작과 배포 사업이 있다. 도서의 배포는 매체로서의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장기적인 교류의 방법이지만 지식층을 대상으로 하거나 식자율[16]이 높은 나라에서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문화나 역사를 소개하는데 적당

한 방법이다.

다섯째, 시청각 자료의 제작 및 공급 사업이다. 시청각 자료는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단기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방법이다.

여섯째, 조사연구사업을 들 수 있다. 외국에서의 교류 현황 분석, 문화예술정보의 수집, 국제 문화교류 개성방안 연구 등 국제 문화교류에 관한 조사 및 연구도 중요한 활동 영역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학자, 예술가 등의 인물 교류와 연구기관의 설치, 도서, 그리고 신문, 잡지 등의 교환 등 학술 분야에서의 정보 교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호이해를 위한 기반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국제 문화교류의 기본이 된다. 이에 비해 이러한 장기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성숙하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는 보다 단기적인 효과를 목표로 한 교육지도자, 문화인 등의 단기 초빙, 공연, 전시 등의 조형적 매체 또는 영화, 라디오, TV프로 등의 시청각 매체를 통한 사업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17]

현대 사회에서 문화활동이 차지하고 있는 역할이 점차로 커져가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사람은 많지 않다. 수준 높은 문화는 국력의 척도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도 한다. 국제사회의 문화예술 교류는 국제사회에 스스로의 존재를 알리고, 이를 통하여 국제평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추상적인 목표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현재 국제 문화교류는 이런 소극적인 의미 이상의 적극성을 부여받고 있다. 국제문화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됨에 따라, 영향력을 갖지 못한 문화와 예술은 점차로 그 존재마저 위협 당하고 있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정갑영의 말을 빌리자면, “문화의 세기, 세계화 시대에 문화와 예술을 중심으로 한 국제교류는 우리 문화의 생존, 우리의 삶과 관련된 문제이다.”[18] 뿐만 아니라 국제문화교류는 문화 행사로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들의 외교 활동으로까지 평가받고 있기도 하다.

국제협력을 위한 국제교류는 국가와 국가 간의 공식적인 외교에서부터 지방자치

---

16) Literacy Rate : 세계 국가별 비문맹률

17) 양선미. “한 중 문화교류 협력 방안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5.12), pp.18-19..

18) 정갑영. “국제교류는 우리 문화의 생존, 우리의 삶과 직결-우리나라 문화예술교류활성화와 해외문화원의 역할”, 『문화예술』, 한국문화예술진흥원, (2001.7), p. 8.

단체간의 교류 그리고 지역 주민간의 친선교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세계화와 지방분권화에 따라 과거 국가와 국가 간의 외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자치단체간의 국제교류는 전 지구적 문제의 해결과 도시정체성의 증진에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즉 자매결연도시는 환경, 빈곤 등과 같은 전 지구적 규모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간 상호교류 협력관계를 강화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자매도시의 생활양식과 역사문화에 대한 이해를 상호 증진시키고 인적·물적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발전, 지역정체성 및 지역문화의 확립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 제 2 절 한국의 대 러시아 문화교류 추진배경과 목표

60년대 초 소련 내 한국관련 학자와 외교관들은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는데, 그 결과 소련이 남북한 모두와 정상관계 유지가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당시 소련정부의 공식문서, 유엔 소련대표 성명서는 한반도에 2개 분단국가가 실재한다고 인정해왔다.

그렇다고 물론 60년대 소련은 북한을 제치고 남한과 관계 정상화를 본격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아니었다. 1961년 소련과 북한은 우호, 협력 및 상호 군사원조 조약 체결과 더불어 북한은 법적으로 군사동맹체계 내 편입되었으며, 60년대 4월 민주혁명, 61년 5월 군사쿠데타, 63년 10월 대통령 선거 등 격동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한국도 소련과의 관계 정상화를 꿈조차 꿀 수 없었다.

1970년대 들어서야 겨우 소련과 한국은 조금씩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며 교류가능성을 타진하기 시작했다. 민간인 차원의 사업인 접촉, 제 3국 기업을 통한 간접 무역교류, 양국 영토 내 국제행사 참여를 제한적이나마 허용하기 시작하였으며, 1980년대 후반 고르바초프의 개혁이 시작되면서 소련과 한반도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변하기 시작하게 되었고, 페레스트로이카 정책과 1988년 서울 올림픽에의 소련 선수단의 참가를 계기로 양국관계는 “해빙기”에 접어들었다. 우리나라의 국제 문화교류사에서 전환점이 된 사건인 제24회 88서울올림픽 무렵에 문화시설이 대폭 확충되고, 지방문화진흥 및 문화예술행사의 민간이관 등 주요 문화시책을 바탕으로

한 국제문화예술축전 행사가 다수 개최됨으로써 국제문화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우리나라의 국제문화교류가 활성화된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본격적인 교류의 시발점이 되었던 사건 역시 88서울올림픽이었다. 당시로서는 적성국가였던 소련은 미국에서 개최된 제23회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 불참한 바 있었기 때문에 외교관계가 없었던 한국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에 불참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으나, 뜻밖에도 대규모 선수단을 파견하였다.[19] 물론 그 배경에는 남한이 급속한 경제도약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었던 점, 그리고 '북방정책'을 통해 탈냉전기의 새로운 외교적 활로를 모색하고 있던 남한정부의 이니셔티브도 작용하고 있었다.[20] .

고르바쵸프가 실시한 '신사고 외교'는 소련이 내부 개혁을 위해 필요한 평화적인 국제환경을 만들 목적으로 기존의 군사력에 기반을 둔 제로섬(zero-sum)적 외교에서 신뢰에 바탕을 둔 공존과 타협을 추구하는 외교정책이었다.[21] 이러한 외교의 일환으로 고르바초프는 1986년 7월 '블라디보스톡 연설'에서 한국과의 관계 개선 의사를 보였고, 2년 뒤인 1988년 9월 '크라스노야르스크 연설'에서 극동 지역의 군사적 협력을 제안했으며, 소련군의 일방적인 감축을 선언했다. 또한 그는 여기서 아태 지역 국가들과 이념과 체제를 초월해서 협력할 것을 표명했으며, 구체적으로 한국과 경제교류를 할 의사를 최초로 내비췄다.[22]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의 신사고 외교와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정책은 한 · 소 양국이 50여 년간의 공백을 깨고 국가 간 기본관계를 수립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양국관계는 1990년 9월 30일 외교관계가 수립된 이후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다. 노태우 대통령은 모스크바를 1990년 12월 13-17일 동안 방문하여 소련과 공동으로 모스크바 선언을 발표하였는데, 이 선언은 양국간의 아태지역에서의 이익의 균형과 자결에 입각한 동등하고 호혜적인 관계의 수립

---

19) 최현수,「유럽의 대외문화교류 정책에 비춰 본 동북아 속의 한국문화외교 방향고찰」, 고려대 석사학위논문(1999), 25쪽.

20) 신범식, 「한 · 러 수교 10년의 평가와 전망-사회 · 문화관계를 중심으로」, 『러시아연구, Vol.11 No.1』, (2001), p. 207.

21) 통일원, 『92 북한개요』, (서울:통일원,1992), p. 260.

22) Mikhail Gorvachev, Perestroika : New Thinking for Our Country and the World, New, Updated Edition (New York : Harper & Row, 1988).

과 아태지역의 평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것이었다. 소련은 한국의 통일정책과 남북대화의 정책을 지지하였으며 한국은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를 지지하였다.[23] 또한 고르바쵸프는 이듬해인 1991년 4월 19-20일 제주를 방문하여 노태우 대통령과 3번째의 정상회담을 가지게 되었고, 이 회담에서 고르바쵸프는 한· 소간에 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할 것을 제의하였고 노태우 대통령이 동의함에 따라 양 국가원수는 상호방문을 통하여 국가관계 정상화를 확인하였다. 이후 한국은 러시아의 전략적 영향력을 기대하면서 북한과의 관계 회복 및 북한 관리 차원에서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냉전이 종식되고 소련이 해체된 후 그 후계국가인 러시아연방이 체제전환을 이룸에 따라 한반도 구성원들은 남·북한 관계의 개선을 통해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노력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한반도인들이 독자적으로 운명을 결정할 의지가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이 같은 의지가 실현되는 테두리 조건인 국제정세에서 어느 강국 못지않게 러시아가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지금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24]

위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2차 대전 이후 냉전시대 동안 북한 정권의 수립과 존속을 후원해 온 소련은 적대국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어온 한국과 우호관계를 맺을 수 없었지만,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개혁과 신사고 외교를 펼치자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과 접목하여 미국 및 서방진영과의 불필요한 긴장을 해소해 가면서 소련에 대한 해외의 경계심을 완화해 투자를 늘렸다. 또한 군사부문에 있어서도 과감한 군축의 평화공세를 하고 나서 1990년 9월 30일 한국과 국교를 정상화하였고, 소련을 계승하여 부활한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지원하는 세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25]

1990년 한국과 러시아의 수교에 이어 1992년 11월에 양국간의 문화협정이 체결하게 되어 문화교류의 양적확대와 다변화, 문화부문 재정확충 등 문화 복지를 중시

---

23) 『소련의 한반도관계 자료집』(1986-1991), 세종연구소, 1991, pp. 216-218.

24) 홍현익, 「한 · 러 외교관계 변화 과정과 향후 협력 방안」. 『한 · 러관계 사료집 1990-2003』,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2005), p. 7.

25) *Ibid.*, p. 21.

하게 되었다.

1994년 6월 모스크바를 방문한 김영삼 대통령은 한· 러 양국 간의'건설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동반자관계'를 선언하였으나 1995년 8월 러시아가 북· 러 군사동맹 조약을 연장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여 1996년 9월 10일자로 동 조약이 폐기되었다. 한국과 러시아의 교역량은 1995년 33억 1천만 달러에 달하며 1990년에 비하여 3.7배의 증가를 보였다. 이처럼 수교 초기의 양국관계는 전략면에서나 경제교류면에서도 순탄하게 발전하였다.

1999년 5월 27일에 있었던 김대중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은 '건설적이고 상호보완적인 동반자관계'의 강화를 위해 정부 간 접촉체제 강화, 경제협력 강화, 문화·교육·과학·정보 분야에서의 인적교류 강화 등 포괄적인 관계를 촉진하자는 데 합의했다. 특히 안보문제에서 한국은 러시아가 원하는 유고슬라비아 사태에서 유엔의 역할 강조와 정치적 해결을 지지했고, 아세안지역포럼(ARF)과 함께,'4자회담'과 별도로 러시아와 일본이 참여하는 6자간의 동북아 지역 다자간 안보회의의 구축을 지지했다. 반면에 러시아는 우리의 대북정책에 관한 지지를 표명했다.[26] 경제문제에서는 가시적으로 러시아 극동 지역의 '나호드카 한·러 공단'설립에 합의했고, 이로써 일단은 외교관 맞추방사건 이후 불편했던 양국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양 정상은 양국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가치를 지향하고 있음을 재확인하였고 '다원적'세계 강화를 지향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 함으로써 외교전략 면에서 상호 협력의 터전을 마련하게 되었다.

2001년 2월 26일 푸틴 대통령은 서울을 방문하여 김대중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 정부의 대북포용정책과 한반도 문제 당사자해결 원칙을 지지한다는 러시아의 입장을 표명했으며, 이에 김대통령은 남 · 북한 관계 발전에 러시아가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26) 외교통상부, 「한·러 공동 성명」, 『외교문제해설』, (1999. 6. 15).

## 제 3 절 러시아의 대 한국 문화교류 추진배경과 목표

러시아가 소련으로부터 분리 독립하고, 획기적인 개혁 정책을 시작하는 1992년 전반은 양국관계의 전 기간 중 냉각의 최저점을 이루게 되었다. 신생 러시아는 대내적으로 정치적 민주화, 경제적 시장화와 함께, 대외적으로 친서방주의 외교정책을 펴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표면상 거의 친남한 일변도 정책을 펴게 되었다.

옐친정권 초기에는 경제원조를 목적으로 한 편향된 친한국정책을 추진하여 북한과 동맹관계는 단절하고 한국과 우호관계를 추진하여 시베리아· 동지역을 개발하고 아· 태지역 접근을 위해 한국의 역할을 기대하며 한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진출을 꾀하게 되었다. 그리고 냉전시기 자본주의 국제정치에 대하여 적대감을 느끼도록 교육받은 러시아 사람들의 세계인식 또한 소련이 붕괴된 후 꾸준히 변하여 왔다. 구소련 시기 그들이 수십 년 동안 지녀왔던 자본주의 세계에 대한 적대감은 옐친이 공산당을 불법화하고 자본주의 및 서구식 민주주의를 러시아가 지향할 목표라고 선언한다고 금방 털어버릴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21세기를 맞는 러시아 사람들은 현 세계를 보다 열린 마음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러시아 사람들이 현대 사회의 변화를 받아들이며, 현 세계가'지구촌(golbal village)'이라는 인식을 갖게 된 것이다. 이제 이들은 국가들 사이의 세계가 대결의 세계 혹은 단순한 상호연결(interconnectness)의 세계가 아니라 상호의존(interdependence)의 세계로서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국가가 기업과 경제를 관장하던 소련 시기와는 달리 대부분의 러시아 기업은 사유화되었고, 최근 그 비율은 95%를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안보이익도 그 범위가 대폭 줄어들어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라는 국가적 목표와 어우러져 군사 부문의 구체적인 개혁 작업으로 연결되고 있다.[27] 또한 폐쇄적이었던 사회가 급격히 개방되어 해외 교류도 급증하고 있다.[28] 이러한 변화는 국가가 모든

---

27) 연현식. "러시아 연방의 대외정책 변화에 관한 小考", 『國際政治論叢』제35집 1호, 1995, p. 110.

28) 소련이 붕괴될 즈음 인구는 2억 8000만 명이었는데 국경을 넘어 외국으로 나가고, 또 들어온 총인원은 1991년 약 500만 명이었고, 이들은 대체로 정부와 관계된 일들로 외국을 다녀왔다. 그러나 1996년 외국을 다녀온 총 인원은 약 6,000만 명이었고(출국과 입국의 양 방향 모두 집계), 이것은 약 1억

것을 독점하던 소련 시기의 관행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며, 문화면에서의 대외정책이 갖는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을 뜻한다.[29]

러시아에게 있어서 유럽과 동북아는 지정학적 이익에 대한 전략적 관리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범세계적 규모의 정치· 군사적 안보와 관련하여 러시아의 운명을 결정하는 핵심적 대외적 공간이다.[30] 이는 러시아가 위치한 유라시아 대륙의 양 날개에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이고 경제적 생산성이 높은 6대 경제대국과 강한 군사대국이 포진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유럽과 동북아는 세계의 지정학적 중추인 유라시아 대륙의 안정적 관리와 러시아 국익의 창조적 확대에 사활적 중요성을 지닌 '생명선' 과도 같은 것이다.

푸틴은 동북아를 러시아의 제국적 추동력에 강한 전위로 삼고자 하였고, 아시아에서의 성공을 통해 유럽에서의 열세를 극복하고자 하며, 21세기 러시아를 열어갈 국가발전의 원동력을 동북아의 역동적인 경제 상황에서 찾고자 하였다.[31]

푸틴은 아· 태지역 국가들과의 가일층 강화된 지정학적, 지경학적 연계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 러시아는 항상 스스로를 유라시아국가로 여겼고, 영토의 주요 부분이 아시아에 걸쳐 있다는 점을 결코 잊은 적이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유라시아국가로서의 지정학적 우월성을 항상 잘 활용하지 못했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아시아 태평양국가들과 정치, 경제 및 기타 분야에서의 협력관계 증대를 '말이 아닌 실천'으로 옮겨야 할 시점이다... 러시아가 아 · 태지역 공간에서 진행되고 있는 통합과정에 소외되어서는 안되고, 완전한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필연적이다. 이는 러시아야말로 아시아와 유럽 심지어 아메리카까지를 잇는 독특한 통합적 '연결고리'이기 때문이다...[32]

---

5000만 명인 인구의 20%에 해당된다. 문수언. "러시아 푸틴 정부 대외정책의 새로운 경향과 자유주의 패러다임의 접근", 『國際政治論叢』제46집 1호, 2006, p. 314.

29) *Ibid.*, pp. 305-314.

30) 강봉구. "21세기 러시아의 신안보 전략". 「국제정치논총」. 제40집 2호(2000.2), p. 151.

31) 홍완선. "21세기 러시아의 동북아 국가전략". 「국제정치논총」. 제41집 1호(2001), p. 121.

32) 푸틴 대통령이 발표한 '러시아 : 동방의 새로운 전망', 2000.

이상의 인용문에서 보여주듯 푸틴의 언술은 그간 러시아가 아시아국가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여 국외자가 되었다는 점을 반성하고, 아· 태지역의 객관적이고 당위적인 회원으로서 역내 지역 통합에 적극 참여하여 러시아의 국익을 전향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함축하고 있다. 그 강한 의지는 '말이 아닌 실천' 이라는 표현 속에 잘 들어나 있는데, 이는 언행이 일치하지 못한 과거의 대 아시아 정책에 대한 솔직한 반성이기도 한다.

90년대 초반 러시아의 급진개혁가들은 자신들의 실천적인 행동지침으로 신자유주의를 채택하게 되었으며 소련공산당의 몰락을 계기로 설득력을 갖게 된 신자유주의의 물결 속에서 세계화가 러시아에 상륙하게 됨으로써 러시아의 세계전략의 변화라는 보편적인 틀 속에서 한국과의 수교를 수립하게 되었다.

러시아의 외교정책이 서구와의 실용주의적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의 관계도 유사한 차원에서 유지 발전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이다.

러시아의 동북아 전략의 틀 속에서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정책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첫째, 한반도의 비 핵 지대화를 도모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유지를 통하여 동북아 지역에서 강대국 간 갈등을 예방하며 연해주 등 러시아 극동 지역의 평화· 안정· 치안을 유지한다.

둘째, 남· 북한과의 호혜적인 경제협력을 통하여 러시아 특히 극동지역의 경제발전을 도모한다.

셋째, 미국· 일본· 중국과의 세력균형을 유지하며,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하여 국가적 위상을 높인다.

넷째, 남·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아· 태로 진출하여 강대국 지위를 회복한다.

이런 정책목표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현재 러시아는 남· 북한간의 건설적인 대화를 지지하면서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추진하는 한편, 한국과는'건설적이고 상호보완적인 동반자관계'의 심화를 추구하고 있다.[33] 그리고 이러한 관계 구축을 위해서 문화교류의 역할이 대두되고 있는 바이며,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다음과 같은 세부 방침을 이행할 필요가 있겠다.

---

33) 김명곤. "푸틴 정부의 대외정책 전개와 러시아의 한반도정책".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2). pp. 62-63.

첫째,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러시아의 친한 · 지한 인사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학술교류를 지원하는 등 민간 네트워크 형성을 도와주며 지방정부와도 협력을 구축한다.

둘째, 양국 국민의 상대국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 · 예술 · 스포츠 · 학문 교류를 촉진하고 홍보를 강화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과 러시아에 상대국의 문화원을 설립하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

1990년 수교 이후 양국은 분명히 새로운 관계의 정립을 위한 노력의 첫발을 내디뎠고, 이제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양국관계의 새로운 "관리의 틀"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것은 공식적인 외교관계에 기초한 틀로부터 시작하여 서로를 알고 이해하려는 노력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중심에는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적 교류가 놓여있으며, 공산주의의 몰락과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러시아의 대내외적인 목표의 패턴이 현실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 변화함에 따라 양국가간의 문화교류의 중요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다음장에선 양국가간의 문화교류의 역할과 의미를 알아보고, 각 국가에 소개된 문화교류사업의 실태를 통해 양국의 문화교류 패턴을 파악하여 그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한다. 또한,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양국가간의 문화교류를 개선하고 증진하기 위해서 우리의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제시를 할 것이다.

# 제 3 장 한·러 문화교류와 우리의 과제

## 제 1 절 한·러 문화교류의 역할과 의미

1990년대 초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소련 및 동구 제국을 포함한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가 시장경제를 도입 및 채택함에 따라 세계화 영역은 보다 확대되기에 이르렀으며 세계화가 경제성장을 제고하고, 새로운 기술을 확산시키며,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강력한 운송수단임에 틀림없다. 오늘날의 세계에 있어서 국제사회에 대하여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뿐만 아니라 문화면에서의 대외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세계화가 논쟁적이란 사실의 인식 속에 학자들은 상이한 미래를 예시하고 있지만 낙관적 논리로써의 신자유주의[34]론은 시장 및 문화의 세계화가 지역정치의 경계를 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인민으로 하여금 공통의 이익에 충성토록 하는 '세계적 시민'을 창조시키고 있다.[35] 러시아의 신유라시아주의[36]의 대표적 이론가인 빠나린(A.C. Панарин)은 과거의 모더니즘 시대와는 달리 현대의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를 경제(물질)가 아니라 문화(정신)가 지배하는 시대로 파악한다. 따라서 현대는 물질주의에 예속되어 있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일종의'세계 이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37] 그러한 의미에서 대외정책의 일부분인 국제문화교류는 문화외교로서 정치, 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국가간의 관계발전에 있어서 상대국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문화교류는 자국의 문화

34) 1990년대 초에 세계정치의 새로운 접근방법인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는 국제적 제 조직 및 기타 비 국가 행위자들이 국제적 협력을 증진하는 방법에 집중된 분석을 보였다.

35) 김수희. "세계화에 대한 러시아의 윤리관", 『한국동북아논총』 제24집, 2002, pp. 93-95.

36) 오늘날 러시아에서 점차 대중들의 폭넓은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는 세계화 시대의 대표적인 문화 전략이 바로 '신유라시아공동체구상(Новый евроразийский проект)' 혹은 신유라시아주의(Неоевразийство)이다. 신유라시아주의자들은 러시아를 세계화 시대의 거대한 문화 혁명의 중심이자 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유라시아주의는 한마디로 '문화중심적 세계관(культуроцентрическое мировоззрение)'이다.

37) 오원교. "신유라시아주의-세계화 시대의 러시아적 대안 문화론", 『슬라브학보』 제20권 1호 2004, p. 180.

를 세계에 알리는 일종의 문화외교이며, 그 평화적 성격 때문에 평화를 가장 중요시하는 오늘날의 국제사회에 있어서 평화 외교의 중요한 기둥이 되고 있다. 어떤 이는 국제문화교류의 평화적인 목적은 본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성격 때문에 대외정책 중 다른 정책과 같은 위치에 두고 다룰 수 없는 것 이라고 한다.[38]

한 · 러 양국은 문화교류를 통해 문화를 매개체로 한 민간 교류 확대와 정치, 경제, 학술 분야 등의 인적 네트워킹을 구축할 수 있다. 그 예로 스타스나민센터(SNC)[39] 코리아 및 알비엘에너지의 회장인 이종석 회장이 지난 해 모스크바에서 열린 2006년 문화교류축제인 '러시아의 밤'행사 기간 중에 열린 동북아 에너지 포럼에서 에너지 정책 부문에서 양국 에너지 협력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가 있었으며 이후 러시아 인사들과 친분 관계를 바탕으로 유전 지분 인수를 제안 받아 러시아 코미 공화국내 생산 유전을 인수하였다. 그는 문화 교류를 바탕으로 러시아 주요 인사들과 친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 자원 사업 기회를 만들고 있다고 말하였으며,[40] 지속적이며 우호적인 한 · 러 문화교류가 정치, 경제분야 등으로 확대되어 양국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촉매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41]

오늘날 양국 간 문화 교류는 한 ·러 관계 전체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처럼 양국 간 문화협력 증진에 힘입어 정치교류가 크게 활성화되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한국인들이 러시아 문화 및 예술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보이고, 세계 문화계에서 러시아의 주도적 역할을 높이 평가함으로써 양국 문화 협력에 더욱더 탄탄한 토대를 이루게 될 것이다.[42]

또한 문화교류를 통해 한·러 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으로 호혜적인 협력을 도모할 수 있으며 무궁한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양국은 2003년 9월

---

38) Kimiko Otani. "한국정부 국제문화교류활동의 성격:한국국제교류재단을중심으로(1991-2001)",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3.8), p. 11.

39) 스타스나민센터(SNC)는 러시아 최초 비영리 비정부 민간 문화단체로서 러시아의 문화 상품을 축제 형태로 구성하여 2003년 독일을 시작으로 미국, 중국, 한국 등에서 러시아 문화 축제를 개최하였다. 이 센터의 회장인 스타스 나민(본명 아니스타스 미코얀)은 1960년대 유명한 정치가인 미코얀 외무장관의 친손자로, 러시아 문화계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로 꼽힌다.

40) "러시아와 문화 교류로 민간외교" 모스크바, 김경환기자 (2007.08.27 머니투데이)

41) "문화예술분야가 모든 교류의 근본이죠" 모스크바, 정천기기자(2007.08.26 연합뉴스)

42) http://www.russian-embassy.org (주한러시아대사관-러한문화교류, 검색일자 : 2008.03.17)

김진표 경제부총리의 방러시 상호관계발전에 장애가 되어온 경협차관 문제를 채무재조정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해결하였고 양국 교역량은 40억 달러 정도로 성장하였다. 또한, 2003년 9월 러시아의 한국 과학기술위성 1호 발사를 계기로 양국 간 우주항공 협력도 본격화되었고, 최근 2008년 4월에는 한국여성이 참여한 러시아 우주선 소유즈(Союз)가 성공리에 우주탐사를 마치고 돌아왔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러시아와의 우주항공 협력관계의 전망이 기대되는 바이다. 그러므로 양국가와 양국민들은 한반도 평화 및 안정 유지를 위한 전략적 협력과 호혜적인 경제협력 차원 외에도 양국관계를 양적·질적으로 보다 활성화시키며 현 세계에 풍미하는 일방주의와 신자유주의적 도전을 지양하는 대안으로서'상호간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더불어 번영하는 유라시아 경제 · 문화공동체'를 건설한다는 장기적인 비전에 입각하여 양국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43]

문화교류의 목적에서 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외교와의 관계다. 현재 여러 국가에서 국제 문화교류는 대외정책의 일부분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국제 문화교류는 그 평화적 성격 때문에 평화를 가장 중요시하는 오늘날의 국제사회에 있어서 정치적·경제적 이해를 초월한 평화외교의 중요한 기둥이 되고 있다.

설령, 양국간의 문화교류의 궁극적인 목적이 자국의 이익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국가의 정치적·경제적 전략 목표 달성의 수단으로써 표면화될 경우, 국가간 관계는 오히려 악화될 수 있으며, 문화교류가 정치교류·경제교류에서 해낼 수 없는 고유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또한 향후 한·러 관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측면에서 볼 때 양국 간 문화교류 협력은 더욱 중요하게 부각될 전망이다.

한국과 러시아의 수교 이후 양국의 사회문화 교류에는 새로운 장이 열렸다. 사회문화 교류는 정치경제 교류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정치경제 교류가 주로 국가나 대기업 주도하에 공식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데 반하여, 사회문화 교류는 지방과 민간 차원에서 그리고 때로는 비공식적인 차원에서 더 자주 이루어진다는 점에 그 차이가 있다. 또한 사회문화 교류의 전개 양상은 정치경제 교류의 발전

43) 양선미. "한· 중 문화교류 협력 방안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5.12), pp.16-17.

정도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지만 한편 반대로 정치경제 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마련하기도 한다. 사회문화 교류가 한 · 러 양국 관계 발전의 깊이와 폭을 더 해주고 양국 국민간의 이해와 결속력을 제공해준다고 할 때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 제 2 절 한·러 문화교류사업과 효과

### 1. 한·러 문화교류사업의 실태

한· 러간 문화관계는 1992년 11월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간의 문화교류에 관한 협정에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양국 간 문화교류는 한· 러 수교(1990년 9월 30일) 이전부터 발전하기 시작했다.

1909년 한국의 선구적 지식인의 한 사람이었던 최남선이 톨스토이의 소설들을 번역함으로써 선을 보이기 시작한 러시아문학은 1920년대에 뚜르게네프, 도스토예프스키, 푸쉬킨, 고골, 체홉 등의 작품들이 집중적으로 소개됨으로써 이후 한국의 지식인, 독자 대중에게 세계 어느 나라의 문학에도 뒤지지 않는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19세기 후반 러시아 인민주의자들(народники) 의 “브나로드(в народ)”운동은 20세기 초반 많은 한국청년들을 고무시켜 심훈의‘상록수’같은 소설을 낳게 하였고, 또한 러시아적 분위기에 영향을 받은 염상섭은 ‘표본실의 청개구리’와 같은 소설을 쓰기도 하였다. 러시아 혁명 이후 국외독립운동가들 중 이동휘 등이 레닌을 접촉했으며 1920-30년대에 여운형, 박헌영 등 적어도 수십 명의 한인 독립운동가-사회주의자들이 모스크바에서 조선민족해방운동에 대한 지원을 호소하거나 또는 ‘동방노력자공산대학’등에서 수학했다.

다른 한편 한국에 대한 러시아 측의 관심과 이해는 한국 측의 러시아에 대한 그것에 비해 보다 더 오래되고 체계적인 것이었다. 이미 19세기 초에 러시아학술원은 중국어로 된 한국고대사를 러시아어로 번역한 사람에게 상을 준 일이 있는가 하면, 1855년에는 동해안 일대를 탐색한 곤차로프 보고서가 나왔다. 또 1874년에는

러 · 조사전이 발간되었으며 1897년에는 뻬쩨르부르그대학에서 조선학 연구과정이 개설되었다. 1900년에는 서양이 조선에 대해 갖고 있던 지식을 총정리하고 러시아인들 스스로의 조사연구를 추가한 권위 있는 '조선지'가 두 권으로 간행되어 조선에 대한 연구가 지역학의 차원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이같은 학구적 전통은 이후 러시아 학술원 산하의 동방학연구소나 국립문서보관소의 작업에 반영되었다. 1948년 이후 40년간의 외교적 단절을 겪고서도 러시아(소련)의 한국(남한)에 대한 연구는 비록 이데올로기적 제약으로 왜곡되긴 하였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축적을 이루어 왔다.[44] 러시아(소련)의 한국 연구가 무시할 수 없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러시아인들의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가 컸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 러시아인들에게 소개된 한국문화는 주로 북한의 선전물이나 전통예술장르의 일부에 국한되었기 때문이다.

1945년 이후 '소련'은 한국의 좌파들에게 새로운 국가건설의 모델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북한이 1948년 소련의 직접적인 영향력 하에 정부를 수립한 이후 남한에서는 더 이상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나 소련이라는 나라에 대한 공개적 논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1950-53년의 한국전쟁은 한-소간의 어떤 접촉이나 교류의 가능성도 봉쇄했으며 양측은 이후 40년 가까이 서로를 "멸절시켜야 할 적" 또는 그러한 "적의 속국"으로 간주했다. 그래서 그동안 상호간의 이해는 이데올로기적인 프로파간다나 허구적인 신화로 대체되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1980년대 한국지식인, 대학생들 사이에서 사회주의자와 소련에 대한 관심이 비상하게 제고되었다. 그것은 정부당국의 수십 년에 걸친 협소한 반공주의적 교육체계와 군사독재정권의 억압성에 대한 저항의 한 표현이었다.

페레스트로이카 이전의 러시아에서 한국은 극동 지방의 한 작은 나라에 불과했지만, 페레스트로이카이후 페레스트로이카에 대한 한국지식인들의'열광'은 1987년 이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표출되었다. 그리고 서울 올림픽 개최 1년 전인 1987년에 미술과 음악 분야에서 최초로 소련과의 교류가 시작되었으며, 88 올림픽 기간 중에 볼쇼이 발레단과 마린스키 발레단을 비롯한 여러 극장의 단원들로 구성된 러시아발레단의 공연과 심포니오케스트라 콘서트가 성공을 거두게

44) 김창진. "한 · 러 문화 · 예술교류의 현황과 전망", 경희대학교 한-소 수교 10주년 기념학술회의 발표문, 2000, pp. 2-3.

되었고 그 이후에 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문화교류가 크게 활성화 되었다. 이로써 러시아에서 한국은 아시아의 잘 사는 나라의 하나로 인식되기 시작했으며, 한국에 대한 관심 역시 고조되었다. 어쩌면 이 시기야말로 러시아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역사상 최고조에 이른 시기일 수도 있다. 대학의 한국어과가 붐을 이루었으며, 한국이 이루어 놓은 경제적 성장은 그들에게 일종의 발전 모델로서 의미를 지녔다. 당시 러시아인들에게 한국은 일본과 유사한 부유한 나라였으며, 그들의 인식 속에 일본과 한국의 경제력에 대한 차이는 감지되지 못하였다.[45] 그러나'현실'보다는 일종의'환상'에 기초했던 한국지식인들의'열광'은 1991년 8월 정변이후 소련의 붕괴과정과 함께 사라졌으며 이후 한국의 지식인이나 대학생들, 그리고 매스컴이나 출판물들에서는 러시아-소련이라는 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결여했던 이념적 접근의 부정적인 결과로'사회주의'나'러시아'는 가장 흥미 없는 주제에 속하게 되었다.[46]

그러나 우리나라와 러시아(소련)의 문화교류는 1990년 9월 30일에 국교관계가 수립됨으로써 국가의 기본관계 수립 및 전략적인 협력과 건설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동반자관계 속에서 한층 활발해지게 되었다. 수교 직후인 1991년 1월 30일에 이어령 문화부장관은 "올해는 국제적 문화교류 확대와 함께 북방 외교성과의 문화적 결실을 도모하는 데 전력하겠다."고 밝힘으로써 러시아(소련)와의 문화교류의 확대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나아가 한국과 러시아 정부는 1992년 11월 19일에 서울에서 이상옥 한국 외무부장관과 코지레프(A. Kozyrev) 러시아 외무부장관이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1992년 12월 19일자로 이를 공포하였다.[47]

이런 배경 속에서 한국과 러시아 사이의 문화교류는 1996년 초부터 1998년 말까지의 시련기[48]를 제외하고 1990년대 이후로 오늘날까지 활발하게 전개되어오고 있

---

45) 박태규. "러시아 한류에 관한 연구조사 및 진흥방안", (서울 : 국회문화관광위원회, 2005), p. 76.

46) 신범식. "한 · 러 수교 10년의 평가와 전망-사회 · 문화관계를 중심으로", 『러시아연구, Vol.11 No.1』, (2001), pp. 209-211.

47) 이종진. "한 · 러문화교류의 변화와 전망", 『동서온로-제5집』,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커뮤니케이션 연구회, (1994). pp. 45-47.

48) 이때 러시아의 외교는 유라시아 노선으로 전환하였고 한반도에서도 친한 일변도 정책을 재고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복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며, 그간 한국에 편향적이었던 한반도 정책을 수정하였다.

다. 한 · 러 문화교류를 연구한 바 있는 신범식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발간하는『문예연감』을 참조하여 1990년부터 1998년 사이의 한국과 소련 및 러시아의 예술분야 문화교류에 대하여 아래 <표-1,표-2>와 같은 통계자료를 작성한 바 있다. 또한 통계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김창진도 1994년 1월부터 1997년 11월 기간 동안에 한국과 러시아 사이의 문화예술 교류에 관하여 조사한 바 있다. 그 이후에 출간된『문예연감』을 참조하여 우리나라에서의 러시아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이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2007년 『문예연감』을 통해 본 해외진출 국가빈도는 일본(41건), 중국(27건), 미국(15건), 캄보디아(7건) 다음으로 러시아가 6건이며, 그에 따른 장르는 연극(2건), 국악(3건), 복합장르(1건)로 나타났다.[49]

<표 1> 한국예술가들 및 작가들의 소련/러시아에서의 활동

| 연도 | 미술전시 | 전통음악 | 양악 | 연극 | 무용 | 계 | 비고 |
|---|---|---|---|---|---|---|---|
| 1990 | +7/95 | 0/16 | 7/44 | 1/11 | * | 15/166 | + : 중국 · 소련포함 * : 해당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음 |
| 1991 | +7/112 | 5/41 | 9/65 | 0/9 | 8/40 | 29/267 | |
| 1992 | 0/107 | 1/107 | 9/62 | 1/12 | 6/59 | 17/347 | |
| 1993 | 6/218 | 1/55 | 17/86 | 0/13 | 8/66 | 32/438 | |
| 1994 | 4/269 | 1/42 | 19/64 | 0/9 | 4/118 | 28/502 | |
| 1995 | 2/78 | 1/98 | 8/62 | 0/8 | 6/141 | 17/387 | |
| 1996 | 2/94 | 1/90 | 5/67 | 2/14 | 2/377 | 12/766 | |
| 1997 | 2/307 | 3/89 | 6/105 | 0/31 | 12/270 | 23/826 | |
| 1998 | 3/237 | 5/109 | 5/129 | 0/24 | 0/169 | 13/689 | |
| 합계 | 33 | 16 | 182 | 24 | 173 | 474 | |

<표 2> 소련/러시아예술가들 및 작가들의 한국에서의 활동

| 연도 | 미술전시 | 전통음악 | 양악 | 연극 | 무용 | 계 | 비고 |
|---|---|---|---|---|---|---|---|
| 1990 | +24/173 | * | * | 2/17 | * | 26/190 | + : 중국, |

49) http://www.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2008년 5월 23일 검색)

| | | | | | | | |
|---|---|---|---|---|---|---|---|
| 1991 | +9/851 | * | | 2/17 | 6/29 | 17/131 | 소련 포함된 자료 * : 해당 자료가 없음 |
| 1992 | 8/180 | * | 9/95 | 1/5 | 12/37 | 30/317 | |
| 1993 | 3/197 | 0/112 | 12/91 | 2/10 | 8/35 | 25/445 | |
| 1994 | 5/214 | 2/27 | 23/154 | 1/20 | 17/53 | 48/468 | |
| 1995 | 8/166 | 1/28 | 45/215 | 1/19 | 20/57 | 70/485 | |
| 1996 | 14/229 | 3/22 | 34/197 | 3/259 | 45/133 | 99/610 | |
| 1997 | 7/182 | 8/31 | 24/161 | 7/108 | 53/170 | 99/652 | |
| 1998 | 1/85 | 2/32 | 35/170 | 5/22 | 12/61 | 55/370 | |
| 합계 | 79 | 16 | 182 | 24 | 173 | 474 | |

(표-1,2의 분모는 해당분야의 외국 예술가들 및 작가들의 활동건수 총계이고, 분자는 소련/러시아 예술가 및 작가들의 한국에서의 활동건수이다.)[50]

<표 3> 1994.1~1997.11 기간 한 · 러 문화 · 예술 교류 현황[51]

| 구분＼주체 | 러시아→한국 | 한국→러시아 | 공동참여 | 소계 |
|---|---|---|---|---|
| 공연 | 64 | 9 | 1 | 74 |
| 전시 | 13 | 2 | 4 | 19 |
| 기타 | | 4 | | 4 |
| 총계 | 77 | 15 | 5 | 97 |

<표 4> 한· 러 공연예술단체 교류 현황-2005년 기준

| 구 분 | 러시아 예술단체 한국공연 및 전시 | | 한국예술단체 러시아 공연 | |
|---|---|---|---|---|
| | 공 연 | 전 시 | 공 연 | 전 시 |
| 2001년 | 공연 7건 | 전시 4건 | 공연 1건 | 전시 1건 |
| 2002년 | 공연 9건 | 전시 1건 | 공연 8건 | 전시 3건 |

50) 표 출전 : 신범식, 「한 · 러 수교 10년의 평가와 전망」, 『러시아연구-제11권 제1호』,(2001. 5), p. 233.

51) 표 출전 : 김창진, 「한 · 러 문화 · 예술 교류의 역사와 현황」, 『아태연구-제7집』,(2000), p. 78.

| | | | | |
|---|---|---|---|---|
| 2003년 | 공연 21건 | | 공연 4건 | 전시 2건 |
| 2004년 | 공연 26건 | | 공연 8건 | 전시 2건 |
| 2005년 | 공연 28건 | 전시 1건 | 공연 4건 | 전시 2건 |
| 2006년 | 공연 14건 | | 공연 6건 | 전시 1건 |

※2008 제 8차 한 · 러포럼 예술의 전당 이세웅 이사장 발표자료 인용[52)]

수교 이후 한국과 러시아의 사회문화 교류의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 학문, 언론, 통계, 기록보존 분야로부터 시작해서 문화 및 예술과 스포츠까지, 또한 교통(항공, 철도, 해상), 우편, 관광 분야와 더불어 이공계 분야로는 과학기술 및 정보 · 통신, 특허, 그리고 기상과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이러한 교류의 물꼬는 아무래도 정부 차원의 여러 가지 협정 및 협약으로부터 시작되었는바, 우선 정부차원의 사회문화 교류들을 시간 순서대로 주요 내용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1년에는 고르바초프의 방한을 전후하여 항공협정, 철도협력 의정서등 교통 관련 협정들이 체결되었고, 이외에도 표준분야 과학기술 협정의 체결과 교육협력 양해각서의 교환이 이루어졌다. 이는 한국과 러시아간의 인적, 물적 교류를 증대시켰으며, 항공 및 철도 분야의 협력은 이후에도 계속되어 수차례에 걸쳐 신규노선, 횟수 증편, 시베리아 열차 연결 등에 대한 논의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표준분야 과학기술 협정은 1992년에서 2000년까지 5차례에 걸친 정례 한 · 러 표준협력회의 개최의 발판이 되었으며, 교육협력 협정은 199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한국과 러시아간에 수많은 대학 및 학생들의 교류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1992년 12월에는 한 · 러 문화협력협정이 체결되어 이후 한국과 러시아간에 많은 문화 및 예술교류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후로 2000년까지 4차례에 걸쳐 문화공동위가 개최되었는데, 이를 통해 활성화된 양국의 문화교류야말로 그 동안 단절되고 소원했던 양국의 국민적 이해와 의식을 복원하고 고취시킬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었다.

그리고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의 방러는 한 · 러간에 새로운 관계의 발전을 촉진시켰는데, 이 때를 전후해서 한국과 러시아 극동지역 간에 정기 직항로 개설이

52) http://www.kf.or.kr (한국국제교류재단, 검색일자 : 2008.03.18)

합의되고, 한 · 러 해상사고방지협정, 환경협력협정, 철새보호협정 등이 새로 체결되었으며 통신협력 각서가 교환되었다. 정기 직항로 개설의 합의는 항공과 철도에 뒤이어 해상에서도 양국 간의 교통을 이어주는 발판이 되어, 1996년에는 부산과 블라디보스톡을 연결하는 한 · 러 정기여객선이 첫 취항을 하게 되었고, 2000년에는 한국, 러시아, 중국을 이어주는 한 · 러 정기여객선이 첫 취항을 하게 되었고, 2000년에는 한국, 러시아, 중국을 이어주는 정기항로까지 확보하게 되었다. 또한 국경을 초월한 협력이 시급히 필요한 환경과 철새보호 문제에서도 한 · 러간에 많은 교류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통신협력 분야에서는 양국 간 우편 및 전기통신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 각서가 교환되어 서로의 교류를 증대시키는 데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1995년에는 한· 러 통계청간 양해 각서가 체결되었으나, 그 이후 1998년까지는 국가 차원의 새로운 사회문화 교류에 관한 협정의 체결은 잠시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물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협정 및 양해 각서에 따라 환경, 항공, 항해, 문화 분야 관련 협력과 교류가 이 시기에 지속되기는 하였지만, 경협차관 상환 문제, 외교관 맞추방 사태, 양 국가에 모두 닥친 외환위기 등은 양국 정부 차원의 사회 문화 교류들을 전반적으로 위축시켰다. 하지만 1999년 김대중 대통령의 방러는 한· 러간에 사회문화 교류를 증폭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1999년 초 이후부터 현재까지를 우리는 실질적이고 호혜적인 동반자관계로의 개선기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양국간에 새롭게 기상협력 약정,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기상협력 약정들이 체결되었으며, 또한 국제교류재단의 주최로 언론, 문화, 관광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한· 러 포럼이 개최되고, 한· 러· 중 해륙교통로 관련 협의와 정보통신 협력위원회 구성이 추진되었다. 모스크바에서는 한· 러 기상 공동실무회의가 열려 수년 내에 한국에서도 인공비를 내릴 수 있는 문제에 대해 토의하였으며, 제네바에서는 한· 러 통신차관 회담이 개최되는 등 양 국가 간의 과학기술 차원의 교류도 활성화되었다.

2001년 푸틴 대통령의 방한을 전후하여서는 무역 및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고, 관광분야 협력 협정이 체결되어 관광 차원에서 증대되는 양국의 교류를 원활히 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2002년 7월에는 주러시아 한국 대사관이 러시아 외무부, 철도부 등과 공동으로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이용하여 러시아

주요도시를 순회하는'한· 러친선특급'행사를 추진하여 한· 러 양국 간의 교류를 심화시켰다.

이와 같이 한국과 러시아 사이 사회문화 교류는 일단 정부 주도로 다양한 분야의 각종 협약 혹은 의정서의 체결을 통해 시작되었으나 지방자치 차원에서도 우리나라의 여러 도시와 아래의 여러 러시아 도시간의 우호 혹은 자매 결연을 맺어 국제교류를 꾀하고 있다.[53]

<표 5> 한국과 러시아의 국제교류 도시

| 러시아 도시명 | 자치단체명 | 결연일자 | 비 고 |
|---|---|---|---|
| 모스크바 | 서울특별시 | 1991-07-13 | 자매 |
| 모스크바 | 서울 중구 | 2007-06-04 | 우호 |
| 모스크바시 유고자빠드니구 | 서울 서초구 | 1992-03-31 | 자매 |
| 블라디보스톡 | 부산광역시 | 1992-06-13 | 자매 |
| 상트페테르부르크시 | 대구광역시 | 1997-11-03 | 자매 |
| 서시베리아 노보시비르스크시 | 대전광역시 | 2001-10-22 | 자매 |
| 톰스크 | 울산광역시 | 2003-11-12 | 자매 |
| 모스크바주 | 경기도 | 1997-05-10 | 자매 |
| 니즈니노브고로드 | 경기 수원시 | 2005-06-11 | 자매 |
| 브리야티아공화국 울란우데시 | 경기 안양시 | 1997-07-23 | 자매 |
| 하바로브스크시 | 경기 부천시 | 2002-06-24 | 자매 |
| 홈스크시 | 경기 안산시 | 2003-08-30 | 우호 |
| 유즈노사할린스크시 | 경기 안산시 | 2003-08-29 | 우호 |
| 아무르주 벨로고르스크시 | 경기 안성시 | 2003-05-25 | 우호 |
| 연해주 | 강원도 | 1998-05-27 | 자매 |

53) www. klafir.or.kr/index.html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검색일자 : 2008년 3월 16일)

| | | | |
|---|---|---|---|
| 연해주 나홋트카시 | 강원 동해시 | 1991-12-10 | 자매 |
| 핫산스키라이온 | 강원 속초시 | 1996-07-01 | 우호 |
| 쿤구르시 | 강원 삼척시 | 2003-05-30 | 우호 |
| 레닌그라드주 | 충청남도 | 2000-12-13 | 우호 |
| 아무르주 | 충청남도 | 1995-06-15 | 자매 |
| 서시베리아 노보시비르스크시 | 전라남도 | 2005-09-28 | 우호 |
| 이르쿠츠크주 | 경상북도 | 1996-09-10 | 자매 |
| 하바로프스크주 | 경상남도 | 1996-09-14 | 자매 |
| 야쿠츠크시 | 경남 창원시 | 2003-06-18 | 우호 |
| 연해주 우수리스크시 | 경남 마산시 | 1999-10-26 | 자매 |
| 사할린주 | 제주도 | 1992-01-17 | 자매 |

그 결과 민간 차원에서도 많은 분야에 걸쳐 문화 교류가 이루어졌는데 그 양상을 개략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관광, 학업, 상업 등의 목적으로 활발한 인적 교류가 이루어졌다. 물론 이러한 교류는 양적인 측면으로만 보았을 때, 러시아인의 한국 입국이 전체 외국인 입국자 중에서 평균적으로 매년 약 3%에 불과하고, 한국인이 러시아로 출국한 비율은 전체 외국으로의 출국자 가운데 대체로 1% 미만의 낮은 비율인 데서도 알 수 있듯,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못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미국(최근 5년간을 살펴볼 때 전체 입국자들 중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평균 10%내외), 일본(약 40~50%), 중국(5~10%)으로부터의 입국자들에 비하여, 또 한국인들의 미국(15% 내외), 일본(약 20~25%), 중국(15% 내외)등으로의 출국자들에 비하여 인적 교류의 양적인 측면에서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아직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전과 비교할 때, 한국에서는 이제 러시아 보따리 상인이나 취업자들 그리고 러시아 교수(특히 예술이나 어학분야)들이나 유학생들의 모습이 대도시는 물론 지방도시와 시골에서도 자주 마주칠 수 있는 한국 내 외국인

들의 하나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이것은 큰 변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러시아에서도 수천 명에 달하는 한국 유학생이나 기업인들의 거주와 관광객들의 방문으로 이제 한국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인식이나 이해의 폭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인 현상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인적, 조직적 차원의 교류 외에 교재, 교과내용, 교육기관 설립 등과 관련하여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1991학년부터는 사상 처음으로 한국의 고등학교에서 러시아어를 가르치게 되었고, 문교부는 러시아에 사는 우리 교포들에 대한 민족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재외국민용 한국어 교재를 러시아에 보급하게 되었다. 1992년에는 모스크바에 첫 한인모국어학교가 한 · 러 양국 정부의 지원 하에 설립되었다. 그리고 1993년 러시아는 중등학교 새 교과서에서 '한국은 눈부신 신생공업국'이라 표현하고, 한국전쟁을 '북침'에서 '남침'으로 고쳐 기술하는 등 역사, 현대사, 지리 과목 등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한국에 대한 내용을 새로이 담게 되었다. 또한 1993년과 1995년 각각 사할린과 블라디보스톡에 한국교육원이 설립되었고, 나아가 블라디보스톡에는 1995년 같은 해 러시아 국립 극동대학교에 정규 단과대학인 한국학 대학이 건립되었으며, 1996년 이르쿠츠크대학교 국제학부에 한국학과가 개설되는 등 최근에는 러시아의 주요 대학 대부분에 한국학 과정이 마련되었다. 물론 한국에서도 러시아 관련 학과와 대학원의 개설이 20~30개에 달하게 되었다.

양국 간의 사회문화 교류 중에서 가장 눈에 두드러진 것은 아무래도 문화 및 예술 분야 교류일 것이다. 양국 간의 문화 및 예술 분야의 행사는 1997년과 1998년 양국이 겪은 경제위기의 시기를 제외하면 꾸준히 증가하여 그 수가 수백 회에 이르는 상황이다. 분야도 다양하여 연극, 영화, 뮤지컬, 발레, 인형극, 피아노, 첼로, 비올라, 성악, 오페라, 미술품전시 등등 서로 간에 전통 및 현대 문화를 활발히 선보였다. 이러한 문화 및 예술 분야의 교류는 협력을 통한 양국 간의 이익의 증진이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상대국에 대한 정신적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2000년 한 · 러 수교 10주년을 맞이하여서는 특히 많은 문화 교류가 이루어졌다. 한 · 러 수교 10주년 기념(2000)과 상트페테르부르크 창도 300주년 기념(2003), 서울에서의 "모스크바 날", 모스크바에서의 "서울의 날"(2004)등의 일환으로

한 · 러 간에 다양한 문화 행사가 펼쳐졌으며 러시아의 적잖은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들이 한국에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한국 발레단, 오페라단, 심포니 오케스트라, 대학, 극단, 발레학교 및 클래식 오케스트라 등과 협력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내한한 대표적인 러시아 공연단을 소개하자면, 카삿키나와 바실레프 단장의 국립클래식발레단(2001), 류비모프 단장의 타간카 극단(2002), 예르몰로바 모스크바국립드라마극단(2003), 로좁스키 극단(2004), 볼쇼이 발레단과 마린스키 발레단(각가 2004년 4월과 10월, 서울공연)을 꼽을 수 있으며, '살아있는 톨스토이전' 전시회(2004-2005)가 서울에서 개최되었고, 영화 '나이트 워치'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2005)의 개막작으로 선정되었다.

영화분야는 모스크바 국제 영화제 등을 통하여 한국 감독들의 작품이 많이 소개되었다. 2001년 모스크바 영화제에선 남북한 영화 축제란 프로그램이 진행되기도 했다. 러시아 영화 전문가들은 이창동, 홍상수, 김기덕 감독을 한국의 3대 감독으로 꼽고 있다. 특히나 김기덕 감독의 영화는 거의 전부가 비디오나 DVD로 출시되었으며, 이러한 엽기적인 소재와 주제를 영화 속에서 구현하는 김기덕 감독의 작품에 러시아인들은 열광한다. 한국 대사관 공보원은 매년 모스크바 대학교에서 한국 영화제를 개최하여 <쉬리>,<공동경비구역JSA>,<8월의 크리스마스>등 한국에서 흥행한 작품들을 상영하여 많은 인기를 모았다. 그리고 2003년 한국의 사물놀이를 응용한 <난타>가 체홉 국제 연극 페스티발에 초청작으로 공연되었다. 이전의 한국 공연이 주로 홍보 차원에서 무료입장 시스템을 취했다면 <난타>는 3일에 걸쳐 많은 러시아인들이 스스로 표 값을 지불하고 공연을 즐겼다.

한국의 러시아 전문연구자들과 언론사 기자들로 구성된 답사단이 시베리아 열차로 러시아를 횡단하면서 지방 도시들에 대한 탐방과 연구를 시도했으며, 2006년에 한국에서 '러시아의 밤'이라는 한· 러 교류축제를 통해 러시아의 클래식, 오페라, 현대무용, 그림자극 등을 소개하는 문화 교류의 장이 펼쳐졌으며, 2006년의 한· 러 교류축제의 서울 진행 이후 답방형식으로 2007년 모스크바에서는 '2007한 · 러 교류 축제' 문화행사가 개최되어 러시아인들에게 클래식, 뮤지컬, 전통 및 현대무용, 전통음악, 영화, 패션 등 다양한 장르의 현대 한국 문화를 소개하였다. 이러한 문화행사를 계기로 한국과 러시아의 정치, 경제, 문화 인사들 간의 친목과 우의를 다지는 활동과 행사도 함께 이루어졌다.[54]

또한 '러시아 천년의 삶과 예술전'이 수개월에 걸쳐 한국의 여러 도시에서 개최되었으며, 2007년 1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3개월간 칸딘스키와 러시아거장들의 작품들이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 전시되었다. 이외에도 각종 한 · 러 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되었고, 정부기록보존소와 러시아 연방기록관리청이 기록보존 교류협력 약정을 체결하여 러시아에 산재한 한국관련 고문서들에 대한 정보수집과 자료보존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2006년 2월에는 문화관광부는 국정홍보처로부터 '홍보원'을 이관받아 러시아 국민들에게 한국문화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등 문화 콘텐츠 위주의 '문화원'으로 명칭과 기능을 개편하고 내부시설과 프로그램을 개선해 주러 한국문화원[55]을 개원하였다. 2005년 11월 대사관 청사에 이어 또 하나의 문화 공관이 모스크바에 세워진 것은 한 · 러 문화교류의 새로운 장을 여는 중요한 계기이며 한 · 러 문화교류를 통해 삶을 더욱 풍족하게 하고 인류 문화창달에 기여하려는 양국의 문화발전에도 보다 충실하게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56] 즉, 러시아에 한국을 보다 효과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문화홍보관 내에 인터넷 카페와 뉴미디어 자료실, 문헌 자료실, 영사실, 전시실 등이 구비하여 각'규장각','단성사','인사동','하회마을','집현전'등으로 명명하여 각실 기능에 따른 의미를 살리도록 했다. 새로운 문화홍보 센터는 러시아내에서 한국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제반 활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할 준비를 갖추었다. 한국과 러시아의 문화교류 거점이 될 문화원은 러시아 국민과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 한국문화 강좌, 종이접기 공예, 한국영화 상영, 공연, 전시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연중 실시한다. 문화관광부는 한· 러간 문화예술 교류는 물론 한류의 러시아 진출을 위해 한국문화원을 거점으로 영화, 드라마, 게임, 만화 등 한류를 우수문화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57]

양국에 거주하는 상대국 교포들을 위한 한· 러 간의 협력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1993년 러시아는 정기간행물 '뉴 타임스 인터내쇼날'을 매주 항공기로 직송하여 한국에서 처음으로 시판하기 시작하였고, 1998년부터는 러시아 관광객과 러시아

54) www. koruss. org. (한러교류협회, 검색일자 : 2008년 03월 18일 )

55) 이 한국문화원은 러시아의 영원한 청년 시인 마야코프스키가 짧은 생애의 마지막 수년을 보냈던 모스크바의 저택에 입주됐다. 모스크바의 시내중신인 보론쪼보 뽈레 3번가에 위치.

56) http://www.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구 국정홍보처, 검색일자 : 2008.03.18)

57) "동토의 땅" 러시아에 한국문화의 훈풍이 분다. (노컷뉴스, 2006.09.07)

동포들에게 한국 내 정보를 알려주기 위한 러시아어 신문 '세울스키 베스트닉'이 발행되었다. 러시아에서는 특히 재러 한국계 동포들을 위한 사업이 최근 진행되었는데, 2001년부터 러시아 볼고그라드에서 한인 정착촌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58] 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시 부근 우정마을이라는 농촌에서도 국영농장을 한국 농민들이 영구 임대 방식으로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등 한· 러 양국에서 서로의 교포들을 위한 협력과 교류가 계속 추진되고 있다.

## 2. 한·러 문화교류사업의 문제점

러시아는 우리 한민족과 마찬가지로 농민공동체적 삶에 뿌리를 둔 평등의식 및 그와 상반되는 듯한 가부장주의적인 정치전통을 같이 발전시켜왔기 때문에, 우리와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쉽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러시아는 유라시아라는 지정학적 공간에 위치하여 역사적으로 유럽과 아시아 문화의 고유한 연결과 종합이라는 문화의 본질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에 도스또옙스끼는 러시아인은 유럽인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인이며 러시아의 미래 운명 속에서 아시아가 주요한 출구가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59] 이런 문화적 공통성에 기반 하여 러시아와 접근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이인호 전 주러대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 과거의 잘못된 관계를 청산하고 바로잡는 일은 이처럼 이념적, 국가적 장벽을 뛰어넘는 보편적 가치들에 대한 인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전 인류가 공통으로 지켜나가야 될 가치들에 대한 인정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관계의 토대가 잡히고 나면 문화교류의 백미는 역시 상대방의 특수성, 창의성, 천재성의 발견과 수용에 있음이 드러난다. 러시아는 현재 거대한 정치적, 경제적 전환기를 거치면서 심각한 진통을 겪고 있지만 문화대국으로서의 러시아의 위상에는 흔들림이 없으며 그 면에서 한국이 러시아로부터 배우고 얻을 것은 너무도 많다.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는 발레, 오페라, 오케스트라 말고도 그 뒤에서 숨어서 묵묵히 뒷받침을 하는 수많은 인재들이 러시아의 자산이다.....[60]

---

58) 홍현익. "한 · 러 외교관계 변화 과정과 향후 협력 방안". 『한 · 러관계 사료집 1990-2003』, (서울:서울대학교출판부,2005), pp. 31~34.

59) 오원교. "신유라시아주의 -세계화 시대의 러시아적 대안 문화론", 『슬라브학보』(제20권 1호, 2004), p. 170.

국제문화교류가 지닌 이런 중요성과 러시아와의 문화교류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러시아와의 문화교류의 문제점을 짚어보기로 한다.

첫째로, 문화교류라고 하면 쌍방향이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이지만, 한국과 러시아의 문화교류는 거의 일방적인 형태이다. 러시아와의 문화교류에서 한국인 전체가 일방적으로 소비자 혹은 수혜자의 위치에만 머물러 있다는 점은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리체데이"마임극단, 오브라스초프 국립중앙인형극단, 드라마극단 '데레보', 폴루닌의 "스노우쇼",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아이스발레단, 보브린 예술감독이 이끈 "볼쇼이 아이스발레", 노보시비르스크 극장의 오페라단과 발레단이 정기적으로 한국 공연에 나서고 있지만 양국의 문화 교류 양상을 살펴보면, 러시아 예술단의 한국 공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동양문화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관심이 높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러시아 내 한국 문화 및 예술 소개는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다.

영화 분야에서 또한 이러한 일방적인 형태의 문제점이 나타난다. 러시아에서 이미 김기덕 감독의 독특한 작품 <섬>,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등 몇 가지가 TV매체와 영화 상영관을 통해서 개봉되어 일부 언론과 마니아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으며[61] 그밖에 <쉬리>, <공동경비구역JSA>, <태극기 휘날리며>, <올드보이>가 모스크바를 비롯한 대도시에서 상영되어 다소간 인기를 누린 바 있다. 김기덕 감독의 영화는 러시아의 DVD를 파는 상점 어느 곳에서나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에 반해, 2006년도 러시아영화<귀향, возвращение>가 상영 된 바 있으나, 한국에서 이 밖의 러시아 영화 상영은 극히 드물며, 영화 DVD구입은 완전히 불가능하다.

두 번째로, 일부 문화예술 행사의 경우에 상업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부작용을 낳기도 하였다. 상업성을 우선시하는 기획사의 입장에서는 작품성에 대해서 자연 소홀해지기 쉽고, 이는 공연의 수준을 저하시키고 성과를 낮추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러시아의 공연단의 경우, 특히 발레 부문에서 "본진(本陣)"이 아니라 2진이나 3진급

60) 이인호. "한 · 러 문화교류의 의의와 과제", 『지역경제』,(1995.9), p. 77.

61) 박태규. "러시아 한류에 관한 연구조사 및 진흥방안", (서울 : 국회문화관광위원회, 2005), p. 130.

의 멤버들이 공연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곳저곳의 무용수들을 모아서 “볼쇼이 발레 스타”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서 순회공연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사실상 모스크바에 소재한 볼쇼이 극장의 주연급 발레단으로 거짓 선전되는 경우가 있었다. 가령 1988년에 서울 올림픽 문화예술축전의 일환으로 “볼쇼이발레 및 소련 발레 스타들”의 공연의 경우에 커다란 관심을 끈 행사였으나, 방한한 무용수들은 러시아 각지에서 급조된 사람들이었다.[62]

세 번째로, 국제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람률 저조 현상이 지적된다. 이것은 주최 측의 홍보부족에도 부분적인 원인이 있으며, 시민들의 문화행사 참여의식 부족에도 부분적인 원인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운영과 관련하여 보다 중요한 문제는 많은 시민들이 국제문화 행사에 매력을 느끼는 데 방해가 되는 요인들이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비롯한 외국의 문화예술행사는 생소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공연이나 작품을 이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수반되기도 한다. 피아노나 바이올린 등의 악기를 사용하는 연주회의 경우나 발레의 경우는 비교적 어려움의 정도가 덜하다고 말할 수 있으나 성악이나 오페라의 경우에는 주최 측이 친절한 자료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관객이 공연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

네 번째로, 국제문화 교류에서 예산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러시아 등 외국의 문화예술단체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현재 문화예술 활동 분야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받는 방법으로는 한국문예진흥원이나 도에서 제공되는 문예진흥기금을 활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그렇지만 러시아의 문화예술단체를 비롯하여 활발한 국제교류를 하기에는 이러한 기금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상 지적된 한국과 러시아의 문화교류의 문제점들은 단기간에 극복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미비점을 하나씩 개선해 나감으로써만 국제문화교류를 활성화시키고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음은 불문가지의 사실이다. 해당분야의 전문가들로 자문기구를 구성하여 상시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은 기획사와는 달리 상업성이 아니라 작품성에 주안점을 두고 외국의 문

62) “유령악단 적발로 본 해외단체 내한공연 실상” (경남신문, 2001.2.3)

화예술단체를 선별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획사 위주의 상업주의와 운영상의 미비점 중 상당 부분이 해결 될 것이다.

또한 네 번째로 지적된 예산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러시아 등의 국제문화교류 행사의 질적인 수준을 바탕으로 하여 수익성을 높이는 데 있다. 그렇지만 이런 해결책은 단기간에 실현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제문화교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러시아 등 외국의 다양한 문화에 익숙해지고 문화예술 작품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러시아의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이 단지 호기심의 대상이 되는 시기는 이제 지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러시아의 단체나 개인을 초청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나 시설은 관객들의 관심을 보다 많이 끌 수 있는 방향으로 해당 행사의 명확한 목표의식을 설정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위와 같은 한· 러간의 문화교류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양국간의 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우리의 과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 제 3 절 우리의 한·러 문화교류의 과제

역사를 통해 볼 때 우리나라는 고대사시기를 제외하고는 주로 문화와 문물을 외부로부터 수입하는 입장에 놓여 있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 이르러 우리 문화를 다른 나라에 보급하고 영향력을 미치게까지 되었다는 사실이 매우 반가운 현상임에 틀림없다. 그동안 한국 경제 위기의 본질은 상품 자체의 품질보다도 세계에 내세울만한 우리 상표나 이미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프랑스 기소르망의 비평처럼, 우리의 위기는 세계에 내세울만한 우리의 독창적인 문화가 없었다는 문화 부재가 그동안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의 본질이었다. 이제 우리도 문화 및 문화 상품의 수출국이 되었다.[63] 현재 한국 상품의 판매 성장과 더불어 러시아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실제로 러시아인이 한국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미미하다. 물론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한국문화의 날 등의 행사가 있으나 보다 지속적으로 한국문화를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3) 박태규. “러시아 한류에 관한 연구조사 및 진흥방안”, (서울 : 국회문화관광위원회, 2005), p. 134.

러시아는 대체적으로 한류 문화의 수용국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문화 수출국인 우리 입장에서는 먼저 러시아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해 민족적 정체성을 중심으로 명확하게 고찰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일국의 정치경제적 상황은 그 국가의 대중문화를 규정하는 토양이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러시아 사회가 처한 정치경제적 상황을 사회학적 맥락에서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다.[64]

또한, 러시아인들의 문화취향을 고려한다면 특정 문화만 교류해서는 편중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즉, 민중문화에서 대중문화, 고급문화에 이르기까지 문화적 위상을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할 뿐 아니라, 문화 갈래도 다양하게 배려해서 어느 한쪽으로 특별히 치우치지 않도록 한다. 젊은 층을 겨냥한 대중문화도 교류하고 엘리트들을 위한 고급문화교류도 배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교류들이 즉흥적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문화교류 당사자간의 자매결연이나 협약서를 체결하고 정기적인 교류 시기와 교류 내용을 정하여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인간이 작은 일에 성실함으로 임하면 문화는 우리에게 큰 것으로 대답한다. 즉, 문화 현상의 보급을 위해서는 전략보다 성실한 태도가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특별히 러시아인들 앞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본다. 또한 문화교류를 통상협상차원이 아니라 문화수용자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는 자세로 다가서야 할 것이다. 러시아와의 문화교류에 있어서 우리의 과제를 문화교류지원, 민족문화의 이해, 한국기업문화마케팅과 문화상품개발의 측면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겠다.

## *1.* 문화교류 지원 확대 과제

21세기의 경쟁에서 국력과 국가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가 문화 · 예술과 과학기술을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진흥시켜야 될 의무가 있음을 국민들이 모두 인식하고 합의하게 되었다. 모든 인간은 성별이나 계층,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예술과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전 세계를 위한 보편적인 재화이다. 러시아와의 문화교류에 있어서 정부의 지원은 양국의 문화교류를 진흥시킴으로써 세수

64) *Ibid.,* p. 137.

증대, 고용창출, 도시미화, 관광진흥, 경기진작 등의 부수효과를 제고시키고 사회에 무한가치를 창출시키어 국민 모두에게 혜택을 준다고 주장한다.[65]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밀접해짐에 따라 한국과 러시아의 지역 간의 교류도 더욱 활발해지게 되었으며 이처럼 국제정치· 경제·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까지도 적극적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이다. 상호의존성의 증대, 경제적 심화 등을 특성으로 하는 세계화(Globalization)[66]의 조류가 그것이다. 상품, 노동력, 서비스, 자본, 기술 등이 이제 국경의 개념을 넘어서 이동하여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는 시대로 이행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경쟁력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가 바로 국가 전 구성원들의 생존의 문제로 이어지는 것이다. 주민의 생활조건에 직접책임을 지고 있는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개입 또한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최근 세계화라는 흐름 속에서 마치 국가의 역할이 약화되어 국가의 능력이 퇴조한 것처럼 생각 할 수 있으나 이는 '국가의 퇴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국가간 상호의존성의 증대로 나타나는 상품, 서비스 및 자본의 이동은 건실한 국민국가간 체제를 필요로 하며, 이에 대하여 국가는 국가간 체제의 안정에 기여하도록 대외적 역할과 능력을 제고하는 활동에 무게 중심을 실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지방정부의 국제교류는 세계화에 대한 또 하나의 대응방안이 되는 것이다.[67]

그러므로 드라마, 영화, 게임, 미술, 음악 등 다양한 장르에서 한국의 문화를 선보 일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하나의 방안으로 고려인[68]들이 예술적으로 뛰어나고 인정을 받고 있으므로, 이들을 매개로 하여 교

---

65) 구광모. "문화/문화예술/문예 : 정책적 개념차이 비교", 『중앙행정논집』, (1997), p. 39.

66) Globalization은 국제화 · 세계화 · 지구촌화 등 다양하게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경제 · 정치 · 문화등 모든 분야에서 상호의존성과 영향과 작용이 증대해 가는 과정과 그 결과로서 이해하고 세계화라는 용어로 번역해서 사용하고자 한다. (Mcgrew 1992. 318~320)

67) 성태규,문희철,정연정. "충청남도 국제교류 활성화방안 연구", 『충남발전연구원』, (2006). p. 1.

68) 러시아를 비롯한 독립국가연합에 거주하는 한인교포를 총체적으로 일컫는 말로써 러시아어(語)로는 '까레이스키'라고 하며, 고려족 또는 고려사람이라고도 한다. 이들이 러시아로 이주하기 시작한 것은 1863년(철종 14)으로, 농민 13세대가 한겨울 밤에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너서 우수리강(江) 유역에 정착하였다. 이어 1865년(고종 2)에 60가구, 그 다음해에 100여 가구 등 점차 늘어나 1869년에는 4,500여 명에 달하는 한인이 이주하였다. 이후로도 이민은 계속되었는데, 거의가 농업 이민이었으나 항일 독립운동가들의 망명 이민도 있었다. 그러나 스탈린의 이른바 대숙청 당시 연해지방의 한인들은 유대인·체첸인

류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해주로 재이주하는 고려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지원을 하여야 한다. 특히, 고려인 단체를 통한 정착지원은 지원의 효과를 증대시키는 동시에 확산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정부의 지나친 지원은 고려인 문화 축제와 같은 행사들을 대규모화 하게 되고 그리하면 현지 고려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보다는 한국정부가 재정의 대부분을 떠안게 되면서 한국주도의 행사로 흐르기 쉽다. 따라서 현지 고려인 단체의 행사에 소규모 다수지원의 원칙에 따르는 방식이 가장 바람직 할 것이다. 고려인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주길 원하는 사안들 중에서 우리가 현재 가장 손쉽게 도울 수 있는 사안은 교육과 문화적인 지원이라고 본다. 고려인들이 한국의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해외동포 초청행사, 한국의 라디오나 텔레비전의 전파, 한국의 인쇄매체 배포, 인터넷 연결 등을 위한 사업에 장기적인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현재 러시아의 한인학교나 한인회 사무실에는 북한 서적이 주로 비치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책 보내기 운동'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각 가정에서 더 이상 읽지 않는 책들을 모아 제공하는 사업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시민운동의 일환으로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운동은 조직을 위한 열의와 노력만 있으면 되는데, 바로 NGO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요소들이다. 따라서 우리정부는 NGO들이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유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NGO들은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운동을 전개시켜야 한다.

최근 주한 러시아 대사관에서는 한국의 뮤지컬 <명성황후>를 러시아에 소개하려고 시도하였다. 아관파천 등 러시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내용의 예술작품으로

---

등 소수민족들과 함께 가혹한 분리·차별정책에 휘말려 1937년 9월 9일부터 10월 말까지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되었다.

이들은 화물열차에 짐짝처럼 실려 중앙아시아의 황무지에 내팽개쳐졌는데, 당시 고려인 수는 17만 50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1만 1000여 명이 도중에 숨졌다. 그러나 고려인들은 강한 생명력을 바탕으로 중앙아시아의 황무지를 개척하고 한인집단농장을 경영하는 등 소련 내 소수민족 가운데서도 가장 잘 사는 민족으로 뿌리를 내렸다. 그러다 1992년 1월 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 외에 11개 독립국가로 분리되면서 고려인들이 거주하는 국가에서는 배타적인 민족주의 운동이 확산되었으며, 이로 인해 고려인들은 직장에서 추방당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자 다시 연해지방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현재 연해지방 거주 한인들을 중심으로 자치회가 형성되어 자치지역의 실현, 모국과의 교류 확대 등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활발하지 않다. (네이버 백과사전 검색일자 : 2008. 5. 25)

서 한· 러 간의 상호 문화이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업적 차원에서의 조건이 맞지 않아서 아직 성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한국고전예술의 소개는 주로 한· 러 수교 10주전, 고려인 이주 140주년, 대통령의 방러 등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문화행사들은 단기적이고 일회성의 성격이 강했다. 최근 한국의 사물놀이 공연이 모스크바에서 비싼 입장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황리에 끝났었다. 이것은 러시아에 한국의 고급문화를 즐기려는 고소득 계층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과 러시아의 전시 및 공연양상을 살펴보면 전시 및 공연단체가 재 초청되거나 재방문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어 정부주도의 문화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시나 공연예술은 영화나 TV드라마와 같이 대량공급과 수요자의 선택에 의해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 간, 단체 간의 연계적인 공연예술교류가 향후 문화산업에 치우친 문화교류에 공연예술분야가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정부는 한국의 예술단이 러시아를 방문하여 공연할 수 있도록 조직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데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러시아와의 문화교류를 추진할 때 해당 행사의 확고한 목표를 설정하여 앞으로는 이런 문화행사가 순회공연이나 교류공연 등의 형태로 장기적이고 제도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69]

또한, 러시아에 한국의 문화가 확산되면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정부는 독일, 프랑스, 미국처럼 문화원에 우수한 한국어 교사를 파견해 러시아인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러시아에 한글을 보급하는 것에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언어보급이 문화산업 진출의 인프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문화의 확산은 한국관광으로 연결되기 마련이므로, 국내 관광선진화를 통하여 한국문화가 지속적으로 연결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책지원을 하고 관광 상품의 개발에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방송인이나 작가, 문화사업 종사자 등의 러시아인들을 자주 한국에 초청하는 기회를 늘리는 등의 정부 보조 역시 러시아에서 한국을 알리는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

---

69) 박태규. “러시아 한류에 관한 연구조사 및 진흥방안”, (서울 : 국회문화관광위원회, 2005), pp. 207-208.

이상으로 보았듯이, 필자는 문화교류에 있어서 정부는 물론이며 민간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지방자치제의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고 문화교류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 단체별 국제교류기금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국가는 대외문화교류 활성화와 지역이미지 제고를 위한 노력의 하나로 지역축제의 활성화 및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재의 발굴, 지역의 무형문화재 전승에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이를 정부가 원조해주어야 한다.

교류를 통한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류 행사 후 평가를 체계적으로 시행하여 교류의 지속성과 효과를 제고하도록 하여야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을 대표할 만한 문화 DB구축과 지역 홈페이지의 다양한 외국어 사용개편이 문화교류 이전에 선행되어야할 과제이다. 대개의 홈페이지는 한국어, 영어로 사용가능하며, 종종 중국어나 일본어가 지원되는 경우도 있다. 적어도 러시아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의 홈페이지에서 만큼은 러시아어로 사용할 수 있는 조건마련을 해야 하겠다. 그리고 각 지역은 그 지역만이 갖는 특별함을 특성화하여 지역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운영함으로써 스페인 발렌시아지역의 '토마토축제'나 독일 뮌헨지역의 '맥주축제'처럼 전세계인들이 특정한 축제를 즐기기 위해 그 지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처럼 우리나라 지역의 문화축제는 러시아와의 문화교류에 있어서 잠재적인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우리나라 지역문화 축제의 대표적인 예로 함평의 '나비축제', 진해의 '벚꽃축제', 구례의 '산수유축제', 광양의 '매화축제', 제주도의 '유채꽃축제', 보성의 '다향제', 부산의 '모래축제', 무주 '반딧불축제' 등 매우 다양하다.[70]

70) 박영애,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이후 한 · 중 문화교류 활성화 방안연구-공연예술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8), p. 107.

## 2. 한국기업의 문화전략 및 문화상품 개발 과제

인류역사상 새로운 지역으로의 자본과 문화의 전파는 항상 있어 왔으나 지금과 같은 소의 '맥월드(McWorld)'[71]로 상징되는 거대 문화자본에 의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화 형성은 그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일국 문화의 전 지구화 현상은 문화가 그 자체로서 스스로 존립한다는 기존의 명제를 벗어나, 상품을 기획하고 보급하는 기업의 이미지에 내장된 가치와 세계관이 문화적 구심력이 약한 지구 주변부 사람들에게 하나의 이데올로기 역할을 강제하고 있다는데 이견의 여지가 없다. 미국의 맥도널드와 코카콜라의 전 세계적 범람은 평범한 입맛의 변화를 초래한 것뿐 아니라 그 속에 함의된 미국식 문화에 대한 동경을 수용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게 만들었다.

이처럼, 우리는 러시아로 진출해 있는 우리기업의 상품과 마케팅을 통해 한국의 이미지를 개선, 발전시킬 수 있다.

그 예로 러시아에서의 2002년 월드컵 TV중계를 들 수 있다. 당시 삼성과 LG, 현대와 같은 한국 굴지의 기업들은 월드컵의 모든 경기에 대한 러시아 중계를 위해서 중계권료를 대신 지불하였다. 월드컵 경기 중계는 러시아에서의 최초의 일로서 한국 제품에 대한 인지도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으며 아울러 매출액과 기업 순익에서 일본의 소니를 제치고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로 거듭난 삼성전자과 LG와 같은 한국 기업들의 공격적인 마케팅과 기업 홍보활동에 기인한 바 크다.[72]

순수한 자연발생적 한국문화상품에 대한 이미지 개선은 적어도 러시아에서 그 파장이 미미하며 오히려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민간 기업의 적극적이고 공격적

---

71) '맥월드(McWorld)'라는 용어는 벤자민 바버(Benjamin R. Barber) 교수가 패스트푸드 기업 명칭인 맥도널드(McDonal's)와 월드(World)를 합성시켜 만든 것으로서 맥도널드, 매킨토시, 마이크로소프트 및 MTV 등의 미국적 다국적 기업 등이 전 세계에 구축한 획일적 단일 문화 소비 체계를 지칭한다.

72) 삼성전자는 1990년대 초 러시아 경제가 지난한 침체를 겪을 때 볼쇼이 발레단과 톨스토이 문학상을 지원하고 상트페테르부르크 정도(定都) 30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도시 보수공사에도 가증 큰 후원기업의 역할을 담당하는 등 문화 마케팅에 대규모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매사에 동기를 중시하는 가치지향적이고 정적인 성향의 러시아 소비자들이 이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서 삼성에 대한 순수한 이미지가 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이것이 시장에서의 한국 상품의 구매욕으로 연결되어 삼성 프리미엄의 신화를 낳는 결과를 가져왔다.

인 시장개척에 의해서 한국의 국가의 이미지 및 상품의 이미지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흔히들 러시아에 진출한 코리아 브랜드 가운데 삼성[73]과 LG를 곧잘 한국 국가 이미지를 상징하는 쌍두마차로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1997년 한국의 IMF위기와 함께 모라토리엄 선언의 상황이 도래하자 볼쇼이 발레단과 톨스토이 문학상, 그리고 테니스 경기 등에 문화 마케팅을 전개하던 삼성은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그것은 이를 계속 수행할 것인가 아니면 그 규모를 축소할 것인가 결정을 앞에 두고서이다. 장고의 과정 끝에 삼성전자는 한국식 의리를 가지고 그들 곁에 남기로 결심한다. 혹독한 기업의 고난을 통해서도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삼성의 대의적 선택은 러시아인들의 가슴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오래 되지 않아 삼성이 그들로부터 돌려받은 사례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순수한 기업으로서의 삼성과 한국 브랜드와의 영원한 우정의 확인이 되었다. 모스크바 시내 중심가 뜨베르스까야에는 삼성의 디지털 제품 전시관인 갤러리삼성이 있다. 브랜드 삼성의 최첨단 디자인과 기술을 선보이는 이 공간으로 인해 삼성 마니아들은 한국에 대해서도 역시 같은 고상하고 고급스런 이미지를 떠올리게 된다고 말한다.

1998년 8월, LG가 자사 확장 전략을 수립하고 브랜드샵 2호를 연지 7일이 지나지 않아 러시아 경제에 모라토리엄의 폭탄이 터진다. 이러한 재난 앞에서 소니, 파나소닉 등의 굴지의 다국적 기업들이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기타 대부분의 기업들은 속속 본국으로 철수해 돌아갔다. 그러나 LG전자는 그때까지 해오던 그대로 러시아 바이어들과 거래를 꾸준히 이어나갔다. 그때부터 러시아인들은 다같이 LG전자를 향해서 “친구”라 부르기 시작했다.

1998년부터 LG전자는 각종 해마다 러시아 180여 개의 도시를 순회하면서 LG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LG 요리교실을 여는 등의 한국문화 열풍을 주도했다. LG 페스티벌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이 행사를 수행했고 최대 참여 인원 15만을 기록하는 등의 기적적인 페스티벌을 창조해 내었다. 유명 가수 초청 공연과 미스 LG 선발대

73) 2005년 3월, 모스크바의 크렘린 궁전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매 2년 마다 러시아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 가운데 20개 분야의 최고를 뽑는 명예로운 러시아 국민브랜드 선정 TV생방송이 있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국민 브랜드는 러시아 상공회의소가 주관하고 일간지 이즈베스티야 등 주요 언론사가 4만 6천명의 소비자에게 물어 선정하는 러시아 최고의 권위 있는 상이다. 이 날 행사의 압권은 선정된 회사의 발표순서가 아니라 전 종목 20개 품목 중 5개 부분의 상을 휩쓸 국민브랜드 코리아에 대한 열기였다. 일개 국가가 전체 종목의 4분의 1을 석권한 것은 이 상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회, LG 가라오케 경연대회 등 평범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행사였지만 러시아인들에게 한국식 페스티벌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갔고 이러한 LG의 노력으로 러시아어 버전으로 된 LG로고송은 현재 러시아인들이 즐겨 부르는 애창곡 중 하나가 되었다.

위의 삼성과 LG의 성공적인 러시아 마케팅 전략은 오늘의 러시아에 자리 잡은 한국 이미지의 원천이 되었다. 그들에게는 적어도 대한민국이 순수한 의미에서의 삼성 혹은 LG 공화국이다.

모스크바의 심장부인 크렘린 광장 앞에는 두 개의 다리가 놓여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다리의 이름을 물을 필요가 없다. 그 다리 중 하나는 삼성교이고 또 하나는 LG교로 불리기 때문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삼성과 LG를 알리는 광고물이 5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것 또한 러시아의 초기 시장 개방 시, 러시아 시장의 잠재성을 모두가 의심할 때, 한국의 두 기업이 그들의 미래를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의 광고비를 지불하고 묵묵하게 오늘을 기다려 왔기 때문이다. 이 다리의 위치는 모스크바에서 대단히 상징적인 위치에 놓여 있어서 많은 일본 기업들이 천문학적 광고비를 제안하며 광고 수주를 시도했지만 역시 거절당하였다. 역시 어려울 때 함께 했던 친구를 버릴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러시아 측 설명이었다.

이처럼 러시아인들이 최고로 여기는 삼성이나 LG같은 프리미엄 기업들의 제품사용 설명서에 한국을 홍보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면 외국인들에 상품 이미지 와 더불어 한국 국가 브랜드를 효과적으로 각인시킬 수 있다.[74]

또 우리나라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기내에 늘 접하게 되는 기내 잡지에 한국관련 기초정보를 재미있고 쉽게 고정적으로 담아내어 국가 이미지를 제고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정홍보처에서 국가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제작하여 항공기 승객들이 읽고 가져갈 수 있도록 한국에 관한 소개와 중요한 정보를 함께 담아두는 것이 좋겠다. 예를 들어 한국의 교통, 수도권 지하철 지도, 숙박시설, 유명한 맛집 등의 주요한 정보와 함께 한국의 문화소개를 한다면 한국을 방문하는 러시아 항공 승객들에게 한국을 알리는 데에 큰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

---

74) 박태규. “러시아 한류에 관한 연구조사 및 진흥방안”, (서울 : 국회문화관광위원회, 2005), pp. 168-175.

한국 업체들은 지난 2003년부터 세계 석유시장에서의 고유가 경향으로 러시아 소비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판단해 같은 분야의 외국 기업보다 월등한 금액 마케팅에 집중했다.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대형옥외 광고와 TV, 신문 광고, 교통수단 심지어는 국경일에 국기를 거는 가로 등에 이르기까지 한국 상품의 광고는 융단 폭격식으로 진행되었고 그 결과 지금 돈으로 환산 할 수 없는 기업 이미지의 개선과 제품 인지도로 러시아 시장에서의 막대한 매출 신장의 확대를 가져왔다. 그 결과 2004년 말을 기준으로 한국산 휴대폰의 시장 점유율은 30%, TV와 세탁기는 27% 그리고 세탁기와 냉장고 30%를 차지함으로써 일본 가전 회사들을 압도하고 있으며, 그와 동시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생각을 달리 하게 하였다.[75]

또한 문화 마케팅 상품은 가치에 따라 문화적, 경제적 효과가 무궁무진하며 드라마나 영화에 등장하는 배우의 라이프스타일이 그들 삶의 구석구석을 파고든다. 그러므로 한국의 기업과 문화 단체 등은 이들 국가와 접촉할 때 비용을 절감하며 손쉽게 마음을 끌어 올 수 있는 것이다. 일반 상품과는 달리 문화는 일상생활 자체의 모습을 담고 있어서 그들로 하여금 쉽게 한국인의 이미지를 가슴에 담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물론 러시아에서는 한국의 초일류 기업 이미지를 통한 것이기 때문에 위의 경우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지만, 러시아에서도 조만간 한국의 문화상품을 통해서 러시아인들의 감성을 흔들고 그것이 국가 이미지 개선과 상품 구입의욕의 상승으로 이어질 날도 멀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76],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문화상품이 필요하다.

첫 번째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접할 수 있고 한국문화의 차별성을 인식할 수 있는 서적의 출간이 필요하다. 러시아의 한국학 혹은 아시아문화 관련 학자와 국내 학자의 공동 집필을 통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릴 수 있는 대중적인 서적과 한국의 현대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보다 참신한 내용의 문학작품의 번역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는 대개의 경우 김동인의『감자』,『배따라기』등과 같은 한국의 고전작품들이 번역되었으나 이는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향후 보다 현대적이고 현대 한국 젊은이들의 삶의 단

75) *Ibid.,* pp. 132-133.

76) *Ibid.,* p. 135.

면들을 보여줄 수 있는 문학작품의 번역이 이루어져야 한다.

두 번째로, 한국의 트렌디 드라마는 현재 급격한 신분변동과 경제성장을 겪고 있는 러시아에서 충분히 어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또한 러시아인들은 외국드라마에 대해 거부감을 그다지 갖지 않는다. 한국 트렌디 드라마의 수출은 궁극적으로 한국문화를 이해하는데 부작용 현상 등을 낳을 수 있는 위험이 있지만 다른 분야의 문화적 홍보와 병행된다면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하다. 그러므로 현재 러시아에서 지속적으로 인기를 누리는 남미 드라마 유통망인 텔레노베라의 구조와 판매전략을 참고로 하여 우리나라 드라마 수출을 도모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한국 트렌디 드라마를 영화화 하여 수출해 보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 영화판의 성공과 함께 텔레비전 판 드라마의 수출을 시작할 수 있다. 또한 러시아 대중의 구미에 맞는 한국 무술영화의 제작과 수출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국의 드라마 중에서 동양문화를 바탕으로 서양문화를 버무린 역동성 있는 내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들이 있다. 그 예로 2006년도에 큰 인기를 끌었던 입헌군주제인 대한민국을 배경으로 한 MBC 미니시리즈《궁》을 들 수 있다. 이런 드라마들은 주로 고급스럽고 현대적인 서양적인 배경과 우아하고 화려한 동양적인 배경의 스토리가 크로스 오버되어 사랑과 가족관계 등에서 인간의 감정을 실감나게 표현하기 때문에 한번 보면 그만두기 어렵다. 이러한 복합유형의 한국 드라마는 유라시아적 문화취향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인들에게 크게 어필할 수 있다. 따라서 러시아 문화시장을 겨냥하여 이 점을 잘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한국의 국가이미지 실태조사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문화 아이템으로 나타난 한국의 요리는 러시아에서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 러시아 여성들은 중년에 접어들면서 심각한 비만을 겪게 된다. 추운 지역에 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단 음식을 즐기다가, 나이가 들어 기초대사량이 줄어들고 활동량이 감소하면서 급격히 비만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음식이 웰빙 음식으로 환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를 위해서 질 좋은 한국 가전제품과 연계하여, 한국음식이 세계최고라는 이미지를 형성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음식 축제, 요리강습 등을 개최하고, 삼성이나 LG의 고급가전제품을 부상으로 제공한다면,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한국 음식문화를 보급하는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 가전제품 설명서와 함께 간단한

한국요리 만드는 법을 소개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77]

그러나 상품으로서의 형식이 우선이 되고 판매 신장을 위해서 문화를 그 내용으로 끼워 넣는다면 우리는 미국인이나 일본인의 경우에서와 같이 우리 문화의 순수성을 의심받을지 모른다. 그러므로 문화와 문화공동체를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 문화 공유 코드로서의 문화의 상품화 과정을 기안한다면 그 누구로부터 그 보편성의 부당함을 지적 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또한 일시적인 수준이 아닌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진행되는 거대한'흐름'의 문화 현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이 절실히 요청된다.

한국은 러시아인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국가의 이미지가 강하다. 아울러 아직도 사회가 역동적으로 변동 발전해 가는 국가적 잠재력이 있는 젊은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만일 우리가 우리 문화 상품을 가지고 상품을 거래하는 장사꾼으로만이 아닌, 순수문화의 수호자요 교류자 역할을 자처한다면 우리가 러시아에서 얻을 수 있는 유형무형의 수익은 우리 기대 이상으로 크게 상승될 것이 분명하다.

## *3.* 민족문화 이해의 확대 과제

지난 한 세기 동안 러시아의 문화를 규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점차 소멸해가고 있는 러시아는 지금 자신이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의 혼돈 상태에서 새로운 방향 모색에 분주하다.

광활한 자연의 대지 위에서, 1년 중 절반이 겨울이고, 다양한 민족이 공존하고 있는 공간에서, 수많은 외침을 당한 역사에서, 그리고 최근에는 사회주의 체제를 세계 최초로 경험했던 러시아인들은 대체 어떤 속성을 지닌 민족일까 하는 의문도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전통적으로 러시아인들의 민족적 정체성의 이슈는 러시아가 과연 '서구', 혹은'동양'에 속하는가, 아니면 이 양자의 어떤 새로운 결합인가라는 구도와 시간적인 대조에 관한 것으로, 즉 오래됨과 새로움이라는 대립 항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 가운데 '예술'은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도 민족적 정체성의 주요 원천으로 기

77) *Ibid.,* pp. 203-207.

능한다.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출구 없이 귀족과 농노라는 상호 적대적인 두 계급 사이에 끼어 있던 러시아의 예술가들은 그 어느 나라에서보다 더 큰 박해를 받았으나 고난의 순간마다 그들은 문학과 예술의 창조적 표현을 통해 자신의 문화와 민족 공동체를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러시아인들은 미술, 발레, 음악 그리고 문학 등을 통해 억압을 해소할 수 있는 탈출구를 찾았다.

러시아 작품 속에서 러시아의 민족적 정체성은 늘 이분법으로 그려지곤 했지만 이항 대립의 자리바꿈 현상도 용인했다. 극과 극은 러시아의 상황에서 확실히 하나로 통한다고 했던가. 러시아 역사의 어떤 극단적 상황에서도 이러한 대립 쌍들은 서로 배타적으로 대치되는 점에 있다기보다 한 가지 선의 연장으로 파악되곤 한다.'플러스'와 '마이너스','선'과'악','우리'와'그들'같은 각각의'동적'혹은'정적'가치의 이항 대립이 상황에 따라서는 서로 자리바꿈하는 현상이 생겨나곤 하는 것이다. 러시아인들은 그래서 누구든지 종교적이고 아울러 자유 분망하고, 개인적 가치를 지향하면서 아울러 공동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의 문학가 표도르 츄체프는 다음의 짧은 4행시를 통해 러시아의 멘탈리티를 표현하고 있다. 《머리로는 러시아를 이해할 수 없다 / 자를 가지고도 잴 수 없다 / 러시아만의 고유의 특질 / 러시아는 그저 느낄 수 있을 뿐이다.》

러시아를 알기 위해 접근하는 외국인들이 흔히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이 시는 러시아의 멘탈리티를 알기 위해서는 러시아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섬세하게 접근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러시아 저명한 작가 블라디미르 솔로비요프는 《비예측성, непредсказуемость》을 러시아 국민성의 첫 번째 특질로 꼽고 있다. 이러한 성질로 인해 러시아의 국민성에 대한 연구는《대상의 학문적 부재성, научная непознаваемость обьекта[78]》이라는 함정에 곧잘 빠지곤 하며 《러시아는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나라 혹은 감추어진 비밀의 나라, Россия - страна неразгаданной тайны》같은 표현이 늘 그 앞에 따라 붙는다.[79] 이러한 러시아의 비예측성의 멘탈리티는 주로 러시아인들의 《양극성, полярность》, 즉 《이중성, дуализм》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러시아 종교철학자 베르자예프는 그의 저서 《러시아의 정신》에서, 러시아인의

78) *Ibid.,* pp.137-149.

79) *Ibid.,* pp.150-151.

양극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러시아의 이중성(양극성)은 서로 모순되는 양극단적 멘탈리티의 교묘한 조합이다. 선과 잔인함, 정신의 섬세함과 무딘 것, 극단적인 자유 추구와 자기 규율, 이타주의와 이기주의, 자기비하와 민족적 자긍심 내지는 쇼비니즘의 조합이 그 예이다.》 베르자예프는 정의나 성스러움을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비정직함을 용인하는 러시아인의 멘탈리티를'정의와 진실'개념의 대조를 통해 그 이중성의 형태를 발견하였다. 《러시아인은 진실을 찾기보다 종교적, 도덕적, 사회적 정의와 그를 통한 구원을 추구한다..... 그러나 러시아인의 멘탈리티에서 다음과 같은 상징들 또한 쉽게 발견된다. 불공평, 모순, 비정직성, 자기파괴 등등 러시아인은 거룩할 수 있으나 정진하진 않다. 정직은 서구의 이상이다. 러시아의 이상은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다.》 또한 베르자예프는 러시아 멘탈리티의 모순은 극단성을 통해 표출이 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종교적 이상이나 사회, 도덕적 정의를 추구하던 러시아인이 그 높은 이상에 다다를 수 없다고 느낄 때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всё, или ничего》라고 하며 차라리 《미천한 짐승, в свинском состоянии》과도 같이 행동하는 게 낫겠다라고 자조하는 것이 좋은 예에 해당한다.

러시아의 멘탈리티는 지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유럽인들에게는 아시아로 아시아인에게는 유럽으로 인식되는 양태류적 성격으로 규정된다. 이는 지리적으로 유럽과 아시아의 중간에 위치해, 오랜 역사를 거치며 유럽과 아시아 양 대륙의 문화적 영향을 깊이 받았기 때문이다. 베르자예프는 이러한 지리적인 조건에서 러시아인의 이중성과 극단성의 원인을 발견하였던 것이다.

러시아의 역사학자이자 문화학자인 드미뜨리 리하쵸프는 중요한 러시아의 멘탈리티로 극단성, 선함, 굴종성, 다른 문화에 대한 수용성, 이상과 정의 추구 등과 같은 성향을 지적했다. 리하쵸프는 러시아인의 극단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러시아는 극단성의 민족이다. 러시아 역사에서는 항상 매우 빠르고 예측할 수 없는 변화를 볼 수 있다. 그래서 러시아는 예측 불가능의 역사를 지닌 민족이다."[80]

러시아의 멘탈리티 가운데 중요한 또 한 가지는 사색을 좋아하고 현실보다 이상을 추구하는 성질이다. 리하쵸프는 19세기 극작가 체홉을 인용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러시아인은 추억하기를 즐겨하나 그 현실에 들어가 살고 있어 하진 않는

80) Лихачев Д.С. 『Раздумья о России』, (Сант-петербург, 1999), p. 33.

다.》 러시아인에게는 현재보다 과거나 미래가 더 중요하며 일상적인 것 보다는 역사와 삶, 그리고 세계상에 대해 사색하는 것이 더 중요해 보인다. 그래서 러시아인들은 현실보다는 종교나 이상적 정의를 추구하고 자연히 현실적인 정치, 사회 활동에서 멀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로스끼는 "러시아인의 특성"이란 자신의 저서에서 곤차로프의 소설 "오블로모프"의 주인공 오블로모프에서 파생된 《Обломовщина(오블로모브쉬나) - 게으름, 수동성》을 예로 들며 "러시아인의 전형적인 성격이 바로 그와 같다"고 설파하였다. 너무 높은 이상만을 추구해 막상 현실 세계에서는 땀 흘리려고 하지 않으려는 오블로모프처럼 러시아인들도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다가 쉽게 게으름과 수동성에 빠져버리곤 한다는 것이다.[81] 인류학자 볼꼬꼬노바와 따따렌코도 러시아 국민성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연구하고 러시아인의 특징으로 '노예근성','인내','몽상-사색' 그리고 '낮은 개인주의 성향'등의 네 가지를 꼽았다.[82]

떼르미나소바도 러시아 국민성 연구를 위해서 6년간에 걸쳐 세 차례에 걸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표-6>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표 6> 러시아 국민성에 관한 설문

| 순 위 | 1992년 | 1995년 | 1998년 |
|---|---|---|---|
| 1 | 친근한, 똑똑한 | 손님접대를 좋아하는 | 러시아적인 것을 중시하는 |
| 2 | 부드러운, 선한, 바보 같은 | 게으른, 선한 | 애국심 |
| 3 | 거친, 우울한, 수다스런 | 정직한, 인내심 있는, 거친, 종교성, 유머감각, 개방적 | 감정적인, 감상적인 |
| 4 | 손님 접대를 좋아하는 | 교양 있는, 단순한 | 인내심, 좋아함, 손님접대를 좋아함 |
| 5 | 건강한, 아름다운, | 즐거운, 자존심강한, | 수다스런, 개방적인, |

81) 로스끼, 임홍수 역. 『러시아인의 민족성』. (광주:조선대학교출판부, 2004), p.33.

82) 박태규. "러시아 한류에 관한 연구조사 및 진흥방안", (서울 : 국회문화관광위원회, 2005), p. 133.

| | 자발적인 | 예민한 | 선한 |
|---|---|---|---|
| 6 | 유머감각, 명랑한, 웃지 않는 | 위험한 | 비밀스러운, 예측 불가능한 |
| 7 | 거대한, 힘센, 권력의, 도둑 | 다른 민족에 대한 이해와 존중, 전혀 예측 불가능한 | 바보 같은, 사악한, 꽉 막힌 |
| 8 | 신뢰성, 깊이 있는, 의기소침한, 베풀기를 좋아하는, 용감한, 즐거운 | 사악한, 알코올 중독 | 우울한, 미신을 좋아하는 |
| 9 | 멋진, 재미있는 | 친절한, 가난한, 교양 없는 | 비호전적인 |
| 10 | | 애국심, 웃지 않는 | 멜랑콜리, 정확성이 부족한, 생각이 가벼운 |

위의 연구를 바탕으로 까씨야노바는 러시아 민족성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문화적 연구를 행하고 러시아 문화의 특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에 도달했다.[83] 러시아인들에게 있어서 ① 목적을 세우는 방법에 있어서는 개인주의 원칙보다 집단주의 경향이 강했고, ② 인간의 사회 환경의 선택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교류보다 불명료한 교류를 선호했다. ③ 인간 행동을 평가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결과보다 의도를 선호했고, ④ 공식적 지위와 개인의 권위 중에서는 후자의 역할이 중대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러시아인들의 인성 타입은 매우 놀라운 것으로서 우리가 지금까지 접촉하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의 백인들과는 전혀 다른 문화의 카테고리가 존재함을 나타낸다.

그녀가 분석한 경험론적 자료를 비교해 본 결과, 러시아인들이 미국인들에 비해 심리적으로 덜 개인주의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즉 러시아 사회는 사회의 해체를 막기 위해서 개개인의 지나친 개인주의를 억압할 만한 집단주의적 문화를 만듦으로써 사회의 집약을 보장하고자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구의 영토면적 1/8에 해당되는 끝이 보이지 않는 국토와 1억 5천의 인구, 그리고 50여 민족이 한 사회를 유

83) *Ibid.,* pp. 137-151.

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집단주의가 그들의 독특한 생존 방식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까씨야노바가 사회적 작위 이론의 관점에서 행한 가치 체계 분석에서 알 수 있는 바, 러시아에서는 서구에서와 달리, 사람들의 작위가 목적 위주의 합리성을 훨씬 덜 지니며, 가치 위주의 합리성을 훨씬 더 지닌다.[84]

또한 까씨야노바는 서구인들과는 달리 러시아인들의 가치 체계에서는 인내가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노동은 이 체계 내에서 매우 미미한 역할을 한다고 분석했다. 그녀는 인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속담들을 그 근거 중 한 가지로 삼았다. 《구원은 좋은 것이지만, 얻기까지는 인내가 따른다.》, 《인내는 가장 좋은 구원이다.》, 《인내 없이는 구원도 없다》, 《신은 인내에 대한 대가로 구원을 주신다.》[85]

까씨야노바의 이론은 러시아인들의 경제 활동 및 정치 행동의 많은 특징들을 잘 설명해 준다. 그녀의 이론을 통해, 예를 들어 국가, 정당, 노동조합 등 목적 위주의 합리성에 따라 세워진 정치 기구가 러시아에서는 왜 서구에서와 다른 기능을 이행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한 기구들은 서구의 그와 유사한 기구들에 지녀진 기능으로서 모든 사전에 나열된 기능을 항상 이행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제도들에 지녀진 목적 위주의 합리성에 따르는 기반이 러시아인들에게 있는 가치 위주의 합리성에 따르는 성질과 완전히 부합하는 것이 아니다. 러시아인들은 목적과 수단을 셈하기보다는 일정한 가치를 추구하기를 선호하며, 비공식적 기반 위에서 자신의 관계들을 실현한다. 이러한 이론은 러시아 국민이 왜 그렇게 비정치적이며 현대의 정치 제도 및 경제 제도가 가져야 할 기능에 대하여 왜 큰 관심을 갖지 않는지를 잘 설명해 준다.

즉 까씨야노바에 따르면 가치는 자신의 행동에 내포된 목적과 규범에 관한 인간의 개괄적 표상으로서, 역사적 경험을 구현하는 것이자 일정한 문화 및 전 인류 문화의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다. 문화의 가치는 인간 및 사회 집단이 행할 행동을 선택하기 위한 것으로 이 지표를 기반으로 하여 행동의 구체적 유형이 세워진다는 것이다.

---

84) M. 베버의 유형분류에 따름.

85) 박태규. “러시아 한류에 관한 연구조사 및 진흥방안”, (서울 : 국회문화관광위원회, 2005), pp. 73-123.

지금까지 논의한 바에 따라 문화사회학을 바탕으로 논의를 정리하자면, 러시아인들은 자신의 삶의 중요한 기준으로 합리적인 목적지향 대신 동기를 묻는 가치지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내용은 러시아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러시아 민족성이 지니는 특징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이것은 문화수용자인 러시아인들의 개인적, 집단적 정체성을 탐구한 것으로 향후 문화수출자의 입장에 있는 우리가 분명히 숙지하고 있어야 할 부분에 해당한다. 이제 절을 달리하여 러시아의 정치경제적 상황을 고찰하기로 한다.[86]

지금 러시아내에는 '마뜨료쉬까의 함정'[87]이 있다. 이 현상은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과정에서 경험부족으로 인한 문제점, 즉 ① 행정 및 경제 관계 법체계의 미비, ② 지나치게 급속한 민주화와 지방자치제, ③ '관료마피아', '경제마피아'의 존재 등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88]

또한 극도로 악화되어가는 러시아 경제환경 속에서 시장경제체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거나, 시장경제의 수혜자가 되지 못하는 계층은 구소련 시대의 향수를 그리워하고 있는데 그들은 다음과 같이 항변하고 있는 것이다. "그때 그 시절에는 배고프지 않았으며,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경제적 여유도 있었다. 휴가 때는 모스크바도 갈 수 있었고 파리도 갈 수 있었으며, 좋은 옷도 살 수 있었고 집도 마련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무엇인가. 여행은 고사하고 빵도 소시지도 없지 않은가. 나는 자유도 권리도 필요 없다. 나에게는 개혁 · 개선 등 낯선 말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옐친은 나에게 배고픔만을 너무 오랫동안 강요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공산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89]

한편, '新러시아인[90]들은 과거의 사회주의 체제에 젖어 자본주의를 이해하지 못

86) *Ibid.*. pp. 137-151.

87) 마뜨료쉬까는 러시아의 민속인형으로서 똑같은 모양의 인형을 크기만 달리하여 만든 것으로서, 적게는 4개에서 많게는 36개까지의 인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뜨료쉬까의 함정'이란 마뜨료쉬까 인형에 비유하여 러시아의 비효율적인 행정을 가리키는 말이다. 즉, 사회주의체제에서 자본주의체제로의 이행기에 있는 러시아가 행정조직의 미비와 민주사회의 경험부족, 불안한 사회적 환경 등으로 인해 행정업무가 비합리적이며 체계적이지 못한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88) 황성준, "러시아, 러시아인 그리고 新 러시아인", 『HRI 포럼』, 현대경제사회연구소, (1994.7), pp. 112-113.

89) 박문신, "하바로프스크에서 본 러시아", 『극동문제』, 극동문제연구소, (1996. 3), p. 63.

90) 신러시아인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서 격변하는 러시아 사회에서 금융이나 부동산 등을 통해 떼돈을 번 사람들을 말한다. 이들은 구소련시대의 공산청년동맹의 간부출신으로서 외국사정에 밝고 역

하는 구세대와는 달리 자본주의에 재빨리 적응하는데 성공하고 있다. 이들은 실제적 자금동원력이 있으며, 경제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있다.

러시아 경제는 2000년 이후 매년 거의 5%대 이상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왔으며 특히 지난 2004년에는 7.1%의 높은 성장률을 이룩했다. 그것은 1999년 이후 계속된 유가상승의 힘에 의존한 것이었지만 이러한 오일 달러에 힘입어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는 고가 아파트가 즐비하게 들어섰다. 물론 여기에는 신흥부유층이 입주를 위해 몰려들고 있다. 또한 체제변혁과 개방 이후 설립이 자유화된 도박장이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서면서 저녁이 되면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라스베이거스로 변한 것 같은 착각에 빠져들게 한다. 모스크바에만 60여 곳이 성업 중인 러시아의 카지노 수입은 지난해 24억 달러였으며 그 수익이 매년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의료인 재교육센터에 근무하는 예브게니 샤포시니코프 교수는 "모스크바 주민의 5%에 해당되는 50만 명 정도가 도박증 환자"라고 밝힐 정도이다.

그러나 사회의 다른 한 구석에서는 한숨과 주름살을 운명처럼 품고 살아가는 수많은 서민들을 보게 된다. 무엇보다 인플레가 가난한 서민들을 괴롭히고 있다. 2004년의 연간 평균 인플레율은 무려 12%에 달하였다. 1999년부터 2004년 사이 고기와 설탕, 맥주와 빵, 소시지, 채소류의 값은 최소 다섯 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빈부격차는 더욱 벌어져서 러시아 전체 인구의 10%가 전체의 30%를 독식하고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전체 인구의 15%인 2080만 명 정도가 월 90달러 미만의 최저 생계비로 살아가면서 질병과 기아의 위기에 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정부는 예산절감을 이유로 그 동안 은퇴 노년층에 혜택을 주어오던 대중교통 무료 이용과 의료비 보조 등 각종 혜택을 2005년 초에 폐지 또는 축소함으로써 러시아 사회의 소외계층은 최근 20년 사이 최악의 생활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005년 7월 11일 미국 포브스지가 발표한 개인재산 10억 달러 이상의 세계 갑부 명단에 러시아인이 무려 27명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러시아는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갑부를 소유한 나라가 되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처음 집권한 2000년에 포브스지가 선정한 그 해의 갑부 명단에 러시아인이 한 명도 오

---

동적인 젊은이 들이다.

르지 못한 것과 비교해서 러시아 사회에서 얼마나 빠른 속도로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 밖에도 러시아는 높은 관료주의의 장벽, 매춘 향락업의 번성과 점차 기업형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수많은 마피아 조직들 등 넘어서야 할 산이 간단치 않음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고르바초프 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은 그의 집권 기간 동안 언론의 개방을 뜻하는 글라스노스티를 최대한 지원했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옐친 대통령 시절에도 유지되었으나 푸틴 정부에 들어서면서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다. 언론 사정의 칼날은 반정부적 성향의 민영 NTV를 2001년 국유화하면서 시작되었다. 2002년에는 역시 같은 이유로 TV6가 강제적으로 폐쇄되었다.

이와 같이 러시아는 여전히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 제반분야에서 전환기적 방황과 혼미를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한 노력은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 서구지향성을 높여가면서 시장경제를 향한 개혁 · 개방으로 체제개혁을 가속화 시켜, 서구시민사회로 이행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슬라브주의적 전통을 되살리면서 러시아 특유의 권위주의적인 체제 내용과 양식의 새로운 모색을 통하여 그들의 옛 영화를 다시 찾으려 할지도 모른다.[91]

러시아에서의 한국 기업의 공격적, 전략적인 마케팅을 통한 우리나라의 이미지 개선, 러시아의 민족성은 그 특질이 가치지향적이고 정적이며, 공동체 지향적이어서 우리와 협력하기에 용이한 면이 많다는 점을 서술했다. 물론 한국 정부 기관의 눈에 보이지 않는 국가 홍보 활동이 러시아에서의 한국문화 확산에 지적인 역할을 한 몫 감당했다는 점도 사실이다. 러시아 민족성 형질 안에는 우리와 공유가 가능한 여러 측면이 분명 존재하며 그러한 문화적 접촉을 위해서 몸을 던져 필사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는 기업들로부터 우리는 배울만한 많은 시사점을 부여 받는다. 다음장에서는 위와 같이 한국과 러시아의 문화교류의 필요성을 인지하였을 때, 앞으로 어떠한 분야의 협력방안들을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모색해보도록 하겠다.

---

91) 김진학, 김현종. “러시아의 문화적 특징에 관한 고찰”, 통상연구,Vol.1 No.1, (1997), pp. 57-58.

# 제 4 장 한·러간의 관계강화를 위한 협력방안

지난 달 29일 러시아 모스크바 외교아카데미 강당에서 열린 제9차 한국-러시아 포럼 참석자들은 한국과 러시아의 인적-문화교류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것에 의견을 일치하였다. 이 포럼에서 알렉산드르 파노프 러시아 외교아카데미 원장은 "양국은 여러 분야에서 아직 활용하지 못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우호 증진에 기대를 나타냈고, 임성준 한국 국제교류재단 이사장은 "한국은 에너지 분야는 물론 인적 문화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92] 향후 양국간의 문화교류 협력의 확대의 가능성을 전망하였다.

21세기 문화홍수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날로 발전을 거듭해가는 문화산업과 우리교유의 정신세계를 담고 있는 순수문화예술이 각자의 분야에서 별개의 문화로 발전을 거듭하기보다 무수한 창작의 가능성과 우리문화, 정신의 요람을 보여줄 수 있는 순수예술분야와 기술력과 높은 인지도를 갖춘 문화산업이 상호공조를 이룬다면 우리문화를 대표하는 문화적 결정체가 될 것이다.

문화교류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인적교류와 공연교류, 작품교류, 관람교류, 상호방문을 통한 문화답사 등이 중요 교류 방식이다. 이런 양식도 몇 가지 방법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공연교류도 한국의 문예단체의 공연을 러시아로 러시아의 문예단체의 공연을 한국으로 초대하여 공연하는 방법이 하나이고, 양국의 문예단체가 함께 공연을 기획하여 한국과 러시아를 오가며 공동으로 공연하는 방법이 둘이며, 문예단체들이 제각기 자기 나라에서 공연하되 상대 국가 문예단체 사람들을 초청하게 관람하는 방법이 있다. 이 가운데 어느 한 방법을 택해도 교류를 한 셈이지만, 교류의 밀도를 넓히려면 몇 가지 방법을 두루 택할 필요가 있겠다.

한국과 러시아의 구체적인 문화교류 협력 방안의 내용으로 양국 예술가와 대중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예술 페스티벌의 정례화, 일대일 상호 교류프로그램 확대, 예술단체간 공동제작 활성화, 러시아 진출 한국기업들의 마케팅 강화, 영화나 게임 등의 문화컨텐츠산업의 강화 등이 있으며, 효과적인 문화교류를 위해서는 호혜적 평등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어느 쪽이 다른 쪽에게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92) "한-러, 인적-문화교류 이제 시작". (동아일보, 2008.6.2).

의존해서는 문화교류라 할 수 없으며, 국가와 국가가 대등하게 호혜적으로 문화교류를 해야 한다.

## 제 1 절 인적교류의 측면

국제문화교류를 통한 상호이해의 촉진과 동질성의 확인, 공동체 의식을 느끼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의 직접적인 접촉이며 인적교류에서 생길 여러 나라 국민들의 정신적 연대이다. 인간이 교류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국제문화교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사의 국가 간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93] 학술 및 문화 분야의 교류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 지식층의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 증진을 도모할 수 있으며, 각국의 저명인사 초청에 의한 학계 및 문화계의 저명한 인사들의 방한을 통해 한국에 대해 이해를 깊게 한 인사들이 해외에서 한국에 대한 올바른 입장을 전달하게 되는 것이다.

먼저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관광, 학업, 상업 등의 목적으로 활발한 인적 교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인적교류를 단순화시켜 양적인 측면으로만 보았을 때, 러시아인의 한국 입국이 전체 외국인 입국자 중에서 평균적으로 매년 약 3%에 불과하고, 한국인이 러시아로 출국한 비율은 전체 외국으로의 출국자 가운데 대체고 1% 미만의 낮은 비율인 데서도 알 수 있듯,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못한다.

<표 7> 한· 러 사회문화교류 현황-2005년 기준
(※2008 제 8차 한 · 러 포럼 외국어대 김현택 교수 발제문 인용)

| 구 분 | 러시아를 방문한 한국인 | 한국을 방문한 러시아인 |
|---|---|---|
| 연인원 | 55,000여명 | 62,000여명<br>· 관광 및 단기 체류 : 45,000명 |

93) Kimiko Otani. “한국정부 국제문화교류활동의 성격:한국국제교류재단을중심으로(1991-2001)”,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3.8), p. 14.

| | | |
|---|---|---|
| | · 관광 : 28,000명<br>· 비즈니스 : 15,000명<br>· 유학 및 연수 : 1,800명 | · 비즈니스 : 6,000명<br>· 단기취업 : 1,500여명 |
| 입국목적 | · 강의 및 연구 : 950명<br>· 운동 및 예술 : 230명 | · 유학 및 연수 : 750명<br>· 예술흥행 : 420명<br>· 교수 및 회화강의 : 180명<br>· 연구 및 기술지도 : 500명 |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미국(최근 5년간을 살펴볼 때 전체 입국자들 중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평균 10%내외), 일본(약 40~50%), 중국(5~10%)으로부터의 입국자들에 비하여, 또 한국인들의 미국(15% 내외), 일본(약 20~25%), 중국(15% 내외)등으로의 출국자들에 비하여 인적 교류의 양적인 측면을 보아도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아직 미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과 러시아의 상대국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고양시키려는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그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왜 한국과 러시아의 인적인 교류가 이처럼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가? 그것은 지난 반세기간의 냉전이 남겨준 영향으로부터 우리가 아직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일견 말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오랜 기간동안 상대국에 대한 정보의 차단은 상대국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생산하게 하였고, 특히 이러한 왜곡된 이미지는 과거의 전통적인 이미지와 결합되면서 상대국에 대한 부정적/긍정적 환상을 낳게 하였는데, 이는 다시 새롭게 열린 통로를 통해 받게 되는 새로운 정보와 결합되면서 매우 복잡한 '스테레오타입'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막연히 러시아에 대한 환상을 가지는 이로부터 복잡하고 불안정한 나라라는 폄하에 이르기까지 러시아에 대한 인상의 편차는 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보아 한국인들의 러시아에 대한 인식/이해의 수준이나 그 관심정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아직도 러시아를 "소련"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며, 다양한 이유로 러시아에 대해 관심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러시아를 한국의 진

정한 “이웃”으로 인식하는 단계에까지 이른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아직도 북한이라는 존재는 러시아로 가는 장벽처럼 인식되고 있는 현 상황은 한국인들이 지닌 러시아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쉽게 무너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듯하다.

러시아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러시아 사람들 가운데서도 “까레야”(Корея, 한국)에서 왔다는 답변을 듣고 “북에서 왔느냐”내지는 “남에서 왔느냐”라고 되묻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사실은 그들의 한국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그리 높지 않음을 말해 준다. 이러한 양국에 대한 인식상의 한계들을 그나마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의 단초들은 상대국에서 유학한 학생들, 대사관이나 지 · 상사 직원 및 가족들, 현지 사업가들과 그 가족들, 선교사들 등에게서 발견될 수 있다.[94]

예전과 비교하여 볼 때, 한때 1996~1997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현재는 어느 정도 안정된 추세이다. 이제 한국에서는 러시아 보따리 상인이나 취업자들 그리고 러시아/구소련 출신의 초빙교수(특히 예술이나 어학분야), 연구원, 기술자 및 유학생들의 모습이 대도시는 물론 지방도시와 시골에서도 자주 마주칠 수 있는 한국 내 외국인들의 하나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이것은 큰 변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러시아에서도 수천 명에 달하는 한국 유학생이나 기업인들의 거주와 관광객들의 방문으로 이제 한국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인식이나 이해의 폭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인 현상이다.

한편 개인적이고 민간 차원에서의 인적 교류 외에 지방자치단체나 연구기관 등 조직적 차원에서의 교류도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1991년 모스크바시와 서울특별시, 그리고 1992년 서울의 서초구와 모스크바의 유고자빠드늬구(남서구라는 의미)의 자매결연 등을 시작으로 크고 작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자매결연의 수가 앞의 <표-5>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최근 20개에 달하며 꾸준히 증가하면서 오늘날 교류의 폭이 점차 넓어져가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한국의 러시아 관련 학과를 지닌 대학들이 러시아의 대학들과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이러한 자매결연도 수십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교육 및 연구기관들의 교

94) 하지만 이처럼 단순히 인적교류의 양이 적다는 것이 양국관계의 질을 직접적으로 말해주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적은 수의 인적 왕래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교류의 경우 양국관계가 의미 있는 발전을 이루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신범식. “한 · 러 수교 10년의 평가와 전망-사회 ·· 문화관계를 중심으로” , (러시아연구, Vol.11 No.1, 2001), pp. 213-215.

류는 이미 1990년 단국대학교와 소련 과학아카데미 극동지부 경제연구소의 자매결연 및 학술교류협정 체결, 연세대학교와 모스크바대학교간의 학술교류협정, 그리고 한국외대 부설 소련 및 동구문제연구소와 푸쉬킨 연구소간의 학생연수교류 합의 등 1991년 한 · 소 교육협력 양해각서 체결 이전부터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최근까지는 특히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와 러시아 학술원 산하 극동연구소간의 공동연례학술회의, 그리고 배재대학교와 이르쿠츠크 국립대학교의 연구 협력, 조선대학교와 이르쿠츠크국립언어대학, 야쿠츠크국립대학과의 학생교류협정들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러시아에서의 한국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정착, 발전시켜 한국을 공부하는 인재를 지속적으로 배출하도록 하여, 나아가서는 이들 인재에 의한 지한(知韓) 인맥을 구축하며 양국가의 어떠한 공동연구 작업을 통해 서로의 국가를 오가는 것 또한 인적교류의 한 가지 방법이라 하겠다.

## 제 2 절 전시·공연예술교류의 측면

링컨과 루즈벨트 대통령이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을 경우라 하더라도 예술의 활력이 국가 목적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국가문명의 수준을 결정하는 척도가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해시켰다고 케네디 대통령은 강조하였다. 예술분야는 국가 위기 시에 국민을 통합하고 애국심을 고양시키는 대표적인 상징정책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 것은 물론 모든 인간은 성별이나 계층,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예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예술은 전 세계를 위한 보편적인 재화인 것이다.

자국 예술의 전시와 공연 예술을 통하여 각 나라는 자국의 문화적 번영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다. 예술의 피로는 그 나라에 위신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 보도됨으로써 상대국의 대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러시아의 유수 박물관에 독립 한국실을 신설하여 현지 지역 주민에게 자유롭고 균등하게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항구적이며 공적인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공연 및 전시를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문화 예술을 소개하고, 나아가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제고하는 것이다.

끝이 보이지 않는 국경과 그 안에 산재한 수십 가지의 민족 문화가 공존하는 러시아가 유럽에서 아시아에 이르는 대국가를 구성하고 질곡 많은 역사의 도전에 직면해서도 살아남을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그들만의 특별한 문화적 기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95] 바로 예술은 러시아를 지탱하는 버팀목이었다.

러시아와의 전시· 공연예술분야의 교류 활성화 방안으로 몇 가지를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순수예술분야의 문화교류에 있어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교류기관 간 역할의 세분화와 교류창구의 다원화이다. 우리나라의 대외문화교류의 창구는 외교통상부, 주요업무는 문화관광부를, 대외홍보에 따른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구 국정홍보처)를 통해서 문화교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처 간에 업무의 혼선과 문제 발생 시 책임회피의 경우가 생긴다.

현재 모든 업무가 문화관광부 장관과의 협의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부처의 잦은 장관교체 역시 대외문화교류 정책의 혼선을 가져오는 큰 이유 중의 하나이다. 문화관광부를 중심으로 교류기관간의 역할이 세분화되고, 교류기관 간 역할의 세분화와 더불어 교류 창구를 다양화해야할 것이다.

둘째, 러시아 내 한국공관 및 문화원의 적극 활용 방안이다. 주러 한국문화원은 2006년 2월에 개원되어 러시아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데 기초적인 업무수행을 하고 있다. 이들 문화원은 자국의 교민사회는 물론 상대국의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은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한 · 러 양국의 문화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적인 교류의 場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국제교류재단의 러시아 내 박물관에 한국실을 설치하여 우리문화를 홍보하는 것과 러시아 내 KOTRA의 무역진흥과 더불어 러시아에서 공연되는 공연물에 대한 한국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세미나가 이루어진다면 한국의 민간공연 단체들이 보다 활발한 러시아로의 공연활동을 계획할 수 있을 것이다.

95) 올랜도 파이지스, 『러시아 문화사-나타샤 댄스』, (서울 : 이카루스미디어, 2005), 채계병 역.

## 제 3 절 과학기술(문화컨텐츠산업)교류의 측면

21세기는 문화의 세기이며 문화가 가장 큰 상품으로 각광받는 시대이다.

세계적 경제학자이며, 미래학자인 Peter Ferdinand Drucker는 "21세기는 문화산업에서 각국의 승패가 결정될 것이며, 승부처가 바로 문화산업이다."라고 한바있으며, 미래학자이자 칼럼리스트인 Alvin Toffler 역시 "문화적 요소를 바탕으로 한 창조적 마인드와 혁신적 지식이 선진국가와 종속국가를 가름할 것이다."라고 문화산업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또한, 프랑스의 비평가이며, 지한파로 유명한 Guy Sorman은 IMF를 겪은 한국에 대하여 "한국위기의 본질은 단순히 경제문제가 아닌 세계에 한국적 이미지의 상품이 없는 문화의 위기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한바 있다.[96]

현 시대는 정치적으로 다극화현상이 이뤄지고 경제적으로는 3차 산업(정보 및 지식산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초국가적 기업의 역할이 증대되고 문화산업의 발달이 각광받게 된다. 따라서 경제분야에서는 문화적 요소가 큰 기능을 하게 되어 문화경제가 크게 발달될 것이며, 사회적으로는 다원화사회가 등장하고 사회적 분업의 증대로 직업의 다양화와 중산층의 확대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또한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어 물질에서보다 문화예술에서 삶의 만족이나 행복을 추구하게 되고 문화취향의 다원화가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매체의 발달과 함께 문화의 다양성이 강조되는 현대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문화원형을 발굴하여 문화콘텐츠 상품으로 만드는 일은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의 발전만이 아니라 문화적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작업이 될 것이다. 오늘날 전기 기술과 컴퓨터, 인공위성, 그리고 광섬유의 발달 등의 이른바 뉴미디어의 눈부신 발전이 거듭되면서 바야흐로 문화 콘텐츠 분야는 전 세계의 수용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정보를 순간적으로 주입시킬 수 있는 엄청난 위력의 산업으로 성장했다. 현대 사회에서 미디어는 곧 문화를 상품화하는 기업이라 할 수 있다."전 세계는 문화 산업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걸러진다."는 아도르노(T. W.

96) 이러한 현실에 대하여 미국의 부즈 · 알랜 & 해밀턴에서는 "한국은 비용의 중국과 효율의 일본 양국의 협공으로 마치 넛 크래커(Nutcraker : 호두까는 기계) 속에 낀 호두와 같다. 변하지 않으면, 깨질 수 밖에 없는 운명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 이호건, 윤영한. "Culture Technology를 활용한 디지털 문화콘텐츠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방안"

Adorno)의 문화 산업에 대한 논점은 현재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끊임없이 접하고 있는 문화체계의 위력을 잘 설명하고 있다.

21세기를 문화의 시대 혹은 문화 산업의 시대라고 할 때, 여기서 우리가 뜻하는 문화 산업이란 한 국가의 문화적 자산을 산업에 이용하거나 제품화하는 것 또는 서비스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문화 콘텐츠 산업을 굳이 정의하자면 특히 문화적인 콘텐츠를 다루는 디지털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와 무관하게, 넓게 보면 멀티미디어 콘텐츠 산업이 취급하는 모든 콘텐츠는 이미 문화 콘텐츠라고 말할 수 있다.

문화콘텐츠산업은 전통문화와 창의력을 바탕으로 무한한 시장 확대 가능성을 지닌 분야이며, 문화원형 콘텐츠는 이미지, 동영상, 소리, 2D, 3D등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로 만들어 질 수 있다. 따라서 WCT(WIPO Copyright Treaty)와 WPPT(WIPO Performance and Phonogram Treaty)법이 2002년부터 국제법 효력을 지니게 되면서 콘텐츠에 대한 지적재산권도 강화되는 추세이며, 캐나다, 영국, 프랑스, 유럽연합, 미국 등이 모두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바탕으로 문화콘텐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변화 속에서 우리문화에 기반을 둔 문화콘텐츠를 개발하는 일이 더 중요하게 되었으며 한국과 러시아간의 문화교류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콘텐츠(Content)는 본래'내용'또는'의미 있는 내용물'정도의 개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테크놀로지(Technology)의 상대 개념으로서 미디어 기기 등에 담긴 '중요 의미를 지닌 내용물'이란 뜻에서 콘텐츠(Contents)라고 쓰인다. 그리고 디지털 기술의 보편화에 힘입어 '미디어를 통해 표현된 내용물로서 저작권 등의 권리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지적 재산'이라는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다.

콘텐츠가 활용될 수 있는 분야는 게임산업, 애니메이션, 음반산업, 영화산업, 출판산업, 공연, 모바일 등 미디어기기를 사용하는 모든 분야에 걸쳐 있으며 그 활용 내용에 따라 크게 상품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용과 교육이나 지식 정보 제공 목적의 공공용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표현방식에 따라 컴퓨터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방식이 주를 이루지만 아케이드 게임이나 시디롬 같은 논-네트워크 방식을 구분하기도 한다.[97]

---

97) 김교빈. "문화원형의 개념과 활용", 인문콘텐츠학회(2005), pp. 15-16.

그렇다면 문화 콘텐츠의 효율성과 효과성은 어떤 특성을 지니는가?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문화적 자산에 기초한 상상력과 창조성(창의력)을 들 수 있다. 문화 콘텐츠 산업의 생산, 유통, 소비 과정에서 상상력과 창조성은 그 어느 분야의 콘텐츠보다 절대적인 것이다.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은 우선 온라인방식과 오프라인방식으로 대별된다. 전자는 디지털 네트워크(인터넷 등)를 통해 유통되는 것을, 후자는 도, 소매라는 전통적 상거래방식을 통해 CD-Title, 비디오CD, 음악CD등으로 유통되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온라인 유통방식인 인터넷은 전 세계를 새로운 디지털 통신 방식으로 묶어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정보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유통시키는 새로운 유통 방식이다. 과거 그 어느 때에도 그 같이 많은 정보가 동시에 또 그토록 신속하고 간편하게 유통 될 수 없었다. 물론 이러한 유통 방식은 새로운 정보 통신의 기술에 의한 것이다. 하지만 기술이 뒷받침된다고 해서 그러한 발상이 곧장 나오는 것은 아니다.

온라인 방식의 유통은 유통 주체의 자본 규모에 따라 크게 대자본에 의한 유통과 소자본에 의한 유통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기업 형태의 조직이 운영하는 경우이고, 후자는 개인 혹은 개인 수준에서 운영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 음악을 방송하는 인터넷 방송의 경우에도 기업 조직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국 이외에도 개인이 집에서 인터넷 방송국을 운영하여 청취자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문화콘텐츠의 생산은 1) 처음부터 디지털로 생산되는 경우와 2) 이미 존재하던 아날로그 콘텐츠를 디지털화해서 생산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우선 처음부터 디지털로 생산되는 콘텐츠와 예술 행위의 관계부터 고찰해보자. 특히 그 콘텐츠가 예술 콘텐츠에 해당하는 경우 - 사이버 미술, 하이퍼 텍스트 문학(사이버 문학), 인터넷 영화 등 온라인,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처음부터 디지털 형태로 생산된 예술 콘텐츠 - 의 내용 설계 과정은 예술의 생산 과정으로서의 창조 행위이다. 따라서 이 과정에는 그 무엇보다도 예술적 상상력과 창의력이 필수적이다. 대표적인 문화 콘텐츠인 게임 콘텐츠의 경우를 보더라도, 게임 시나리오를 설계하는 게임 시나리오 작가는 상상력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하여, 어느 문인 못지않은 예술적 산고를 겪으며 게임 시나리오를 완성한다. 그 밖의 경우에도 문화 콘텐츠와 관련해 내용 및 표현 설계 과정을 담당하는 사람은 예술적 소양을 갖추지 않

고서는 효과적인 콘텐츠 생산이 어렵다.

우리나라는 software적 측면에서 이미 off line에서 검증받은 영화, 드라마, 가요 등 검증받은 경쟁력을 상당 부분 확보하고 있는데다, hardware적 측면에서 최근 급속도로 보급되고 있는 광대역통합망(BcN)[98]등 세계에서 주목할 만한 기반 인프라를 고루 갖추고 있다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문화산업을 디지털기반으로 확산 시 러시아와의 문화교류에 있어서 매우 다양한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날로그 예술을 디지털화 하게 되면 더욱 저렴한 비용으로 유통하는 것이 가능해져 유통 비용이 효율적이게 된다. 즉, 유통 비용이 효율적이라는 것은 예술 생산자나 소비자 모두에게 경제적인 제약이 완화된다는 것이다.

오늘날은 이미 디지털화 된 아날로그 예술의 감상이 일반화되어 있다. 양국의 국민들은 상대국의 저명한 화가들의 작품을 프린트나 도판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컴퓨터 화면 위에서도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동시에 작품이나 작가에 대한 상세하고 적절한 안내를 받을 수도 있다. 나아가 전자북 등 새로운 단말이나 전혀 새로운 인터페이스인 가장 현실 단말을 통해서도 우리는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즉, 저 먼 나라에 있는 러시아인들이 직접 한국을 방문하지 않아도 가상현실을 통해 얼마든지 생생하게 한국의 유명한 화가들의 작품을 만나 볼 수 있으며, 우리는 러시아의 에르민따쥐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러시아 작가들뿐만이 아니라 전세계 유명작가들의 수많은 작품들을 만나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99]

러시아와의 문화콘텐츠산업의 교류 추진 방향을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한국의 정체성과 고유성을 보이는 문화원형의 개발이 필요하다. 산업적 활용이라도 원형의 본 모습을 학문적 검증을 통해 제대로 발굴해 내는 탄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한류에 대한 외국의 반응이나 영화제 같은 문화관련 국제 행사들의 수상에서 보이듯이 우리 민족의 특징과 정서를 잘 드러내는 문화현상들의 원형을 찾는 일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

98) 광대역망(BcN) : Broadband Conversion Network)이란 기존의 narrow band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기존의 초고속 통신망에 비해 고속(50-100배)의 고품질 통합망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음성 · 데이터 통합, 통신 · 방송의 융합, 유 · 무선의 통합된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기반 망 구축을 시작, 2010년 전국에 서비스할 예정으로 관련작업이 진행 중이다. (송정희,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한 IT839전략", 2004.11.)

99) 류지원. "문화 컨텐트 산업과 예술의 역할", 서울대학교 예술문화연구소,(2001), pp. 289-295.

둘째는 다양한 결과물을 구현해 낼 수 있는 One Source - Multi Use로서의 문화원형 개발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춘향전 설화 한 가지를 가지고 애니메이션, 영화, 게임, 모바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이 가능한 것처럼 하나의 소재가 여러 분야에서 쓰일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 사업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경우 One Source로서의 문화원형은 각 분야에서 2차, 3차의 가공이 가능한 형태로 제작되어야 할 것이며, 처음 발굴과 제작 과정에서 이러한 이용 가능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원형의 발굴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에게도 콘텐츠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 요소라고 하겠다.[100]

셋째는 점점 더 커져가는 한국에 대한 러시아시장에 부응하기 위하여 러시아가 공감할 수 있는 세계적인 보편성을 바탕으로 한 '한국적인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구호가 있듯이 물론,'한국적인 것'에 강조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 안에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성이 담겨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 세계적 보편성을 갖지 못한'가장 한국적인 것'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 문화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작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러시아 시장에 진출하는 방법은 한국문화의 세계화에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더 적극적인 입장에서 러시아의 문화 소재를 우리 시각과 기술에 바탕을 둔 콘텐츠로 제작하여 세계 문화시장을 선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애니메이션의 경우 디즈니사가 인디안 포와탄족 추장의 딸을 소재로 한「포카혼타스」를 만들고 중국 위진남북조 시기의 시를 소재로 가져다「뮬란」을 만들어 좋은 반향을 얻은 것이 그 예이다.

넷째는 우리 문화를 알릴 대상이 되는 러시아의 문화지도 작성 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 예의와 복식을 중시하던 송나라 사람이 모자를 팔기 위해 월나라에 갔지만 월나라 사람들은 머리를 빡빡 깎고 모자도 쓰지 않기 때문에 낭패를 보았다는『장자』「소요유」편의 우화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가 목표로 삼는 러시아의 문화지도를 가지고 접근한다면 위와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으며 더욱 효과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러시아에는 오래전부터 전해지는 관습과 관례가 수 없이 많다. 예를 들면 문지방을 가운데 두고 악수를 하지 않으며, 미소는 친구 사이에만 인사로 사용된다. 공적

100) 김교빈. "문화원형의 개념과 활용", 인문콘텐츠학회(2005), pp. 16-17.

인 자리에서 미소 짓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경심이 없다는 것이 되며, 아무 이유 없이 미소 짓는 것도 상냥한 것이 아니라 백치 같은 행위로 여겨진다. 러시아인은 상대방의 이야기 도중에 끼어드는 법이 없으며, 서구인들처럼 맞장구를 치지도 않는다.

또한, 러시아인들의 꽃문화는 유별나다. 친척이나 친구 생일, 결혼 또는 각종 행사에 초대받았을 때 대부분의 경우 꽃을 선물로 준비하여 방문하는 것이 상례이다. 특히 여성이 초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꽃을 지참하여야 한다. 그리고 조문의 경우는 꽃을 짝수로, 축하의 경우는 홀수로 준비해야하며, 싱싱하게 파란 잎이 달린 꽃대가 긴 크고 붉은 장미 한 송이는 사랑의 고백이고, 백합은 만남이나 데이트를 상징한다. 그러나 노란색의 꽃은 이별을 상징하는 풍습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101]

마지막으로 이러한 국가 주도의 문화전략은 단기적이어서는 안 된다. 문화의 활용 가치는 무궁무진하며 그 전승된 형태 또한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발굴된 문화원형에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 가운데 더 심화시켜야 할 것은 무엇인지? 또한 앞으로 새롭게 개발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 그 각각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 로드맵도 사업의 진행에 따른 변경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로드맵이 있어야 일정한 방향을 유지할 수 있으며 아울러 중장기적인 대응 전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산업이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 오늘날 지식 기반산업의 핵심을 이루기 때문이다. 세상이 지식정보사회로 바뀌면서, 그 동안 축적된 인류 지식의 활용이 가장 절실해진 곳이 바로 문화산업 분야인 것이다.

---

101) 최용삼 편저. 『유머로 보는 러시아』, (서울 : 명지출판사, 2002), p. 46.

# 제 5 장 결론

한국과 러시아간의 문화 교류는 이제 15년이 넘었다. 이 짧은 시간에 양국 간에 많은 문화 교류가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러시아와 러시아인을 잘 모른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러시아는 추운 나라, 러시아인을 말할 때는 러시아여자들이 미인이라고 거론하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러시아를 이해하고 또한 우리를 바로 알리려는 노력이 시급히 요청되는 바이며, 우리는 단순히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는 계산에서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서 러시아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보, 평화, 그리고 번영이 인류의 주 관심대상 및 성취목표로 구체화되는 21세기 세계화의 시대에는 국가간의 문화협력 및 교류가 더욱 확대 강화되고 있으며, 이는 국가 발전과 국가 위상을 결정짓는 핵심요소이다. 한국과 러시아의 정치경제 관계가 미국, 일본, 중국 그리고 북한 등 주변 정세와 맞물려 돌아가거나 경제 강국들과 끊임없는 이윤경쟁 속에서 영향 받는 바가 크다고 할 때, 문화 교류야말로 한국과 러시아 양 국가만의 독자적이고 내밀한 관계를 엮어낼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 문화관계는 형식적으로는 정치· 경제논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관계이지만, 역으로 정치· 경제관계를 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초가 되는 중요한 관계라고 파악하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양국 국민들은 상업 일변도에서 벗어나되 또한 일방적이지 않고 균형 잡힌 문화 교류의 건전한 발전을 국민적, 정신적 차원에서 계속 도모해야 할 것이다.

문화교류는 자국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일종의 문화외교이다. 문화의 세기 21세기를 맞아 한 국가의 문화가 국력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됨에 따라 문화외교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에 있어서도 두 국가 간의 수교가 이루어지고 문화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문화교류가 필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 국가의 대외적 목표를 이해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이고 활발한 문화교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교류를 통해 양국은 문화적인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으로 호혜적인 협력을 도모할 수 있으며 무궁한 발전 잠재력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 양국이 상호협력과 우호관계를 더욱 심화시켜나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것을 해결해나가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 러시아측으로서는 외국인 기업의 투자와 영업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합리적인 투자환경과 세금제도 등이 미비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한국을 포함한 외국자본의 유치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곤란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외교안보 부문에 있어서도 러시아는 1998년 외교관 추방사건 등 한국과의 일련의 접촉에 있어서 대국주의적인 자세에서 나온 외교적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양국이 서로에 대해 동등한 협력의 파트너로 인식하는 자세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우선 러시아와의 관계개선을 남북한 관계와 연계시켜 수단적으로 접근하는 자세를 지양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안정에 공동으로 기여할 수 있는 진정한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러시아는 한반도의 안정과 통일 문제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로서 한반도 주변의 어느 강대국보다도 통일의 과정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나라라는 인식하에 한반도 문제의 토의에 있어서 러시아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입장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우리는 러시아에 내에서 활동하는 삼성이나 LG와 같은 기업들의 문화전략을 통해 한국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상품을 개발하여 우리나라 홍보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상이한 문화국들 간에 원활한 교류를 결정짓는 요인은 문화적 동질성의 공감대의 폭과 이해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와 러시아간의 미래 지향적 관계형성 및 증진방안의 효율성을 찾기 위해 러시아의 민족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양국관계의 발전을 심화시켜 나가는 인프라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조직들을 활성화하여 정부, 비정부 조직을 통한 교류와 토론의 기회 등의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양국은 상대방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경제, 과학기술 등의 여러 부문에서 실질 협력을 진전시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조망된다.

본 연구를 마치며 필자는 한국과 러시아가 문화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서로의 문화적 특수성을 이해하고 쌍방적 또는 균형적 교류가 되도록 서로 노력하고, 양국이 세계 공동체내의 정의구현과 질서유지 및 확립에 주력함으로써 진정한 화해와 협

력에 의한 의존관계를 증진시켜 나감으로써 문화교류의 진정한 동반자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최종기. 『러시아 외교정책』. 서울: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슐긴, 꼬쉬만, 제지나. 『러시아문화사』. 서울:후마니타스, 2002.

한정숙, 홍현익, 강윤희, 최우익. 『한・러관계사료집 1990~2003』. 서울: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김만수.『문화콘텐츠 유형론』. 서울:글누림, 2006.

김수희. 『러시아문화의 이해』. 서울:신아사, 1998.

김수희. 『러시아 문화론』. 광주:조선대학교출판부, 2000.

김수희. 『세계화와 우리의 진로』. 광주:조선대학교출판부, 2006.

로스끼, 임홍수 역. 『러시아인의 민족성』. 광주:조선대학교출판부, 2004.

김복수. 『'문화의 세기'한국의 문화정책』. 서울:보고사, 2003.

최재승. 『문화를 읽는다 미래를 본다:21세기 한국 문화정책의 발견』. 서울:나무와숲, 2001.

김형주. 『문화로 본 러시아』. 서울:두리, 1998.

스타이티스 ・ 리차드. 『현대 러시아 문화세미나』. 서울:미크로, 2000.

김경욱. 『이야기 러시아사』. 서울:청아, 1995.

이종진 외 3인. 『현대 러시아연구』. 서울:집문당, 1993.

Edward Shils, Tradition, 김병서 외역. 『전통』. 서울:민음사, 1992.

구광모.『제18장 : 문화 · 언론 · 공보정책. 한국정책학회 편 - 대통령과 국가정책』. 서울:대영문화사, 1994.

이재석. 『중국문화개론』, 동문선, 1991.

올랜도 파이지스, 채계병 역.『러시아 문화사-나타샤 댄스』. 서울 : 이카루스미디어, 2005.

최용삼. 『유머로 보는 러시아』. 서울 : 명지출판사, 2002.

홍완석. "뿌찐 시대 러시아의 대외정책과 전략분석과 전망", 홍완석(편),『21세기 러시아 정치와 국가전략』. 서울:일신사, 2000

강봉구, "러시아연방 대외정책노선:형성 및 변화의 동인", 현대러시아 연구회(편), 『현대 러시아의 이해』. 서울:퇴설당, 2001.

-국내논문-

최현수. "유럽의 대외문화교류 정책에 비춰 본 동북아 속의 한국문화외교 방향 고찰". 고려대 국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9).

김태희. "러시아 대중문화 연구". 고려대 국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0).

박시분. "러시아 혁명 전·후기의 발레 연구-볼쇼이발레를 중심으로". 청주대 대

학원 석사학위논문(1990).

정현두. “소비에트 러시아 문화정책과 영화 :192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2).

노윤정. “러시아 발레교육의 역사적 배경과 발전 방향”. 조선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2003).

김지영. “한국 대외문화교류정책의 흐름과 특징”. 경희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4).

김수희.“세계화에 대한 러시아의 윤리관”,『한국동북아논총』제24집, 2002.

문수언. “러시아 푸틴정부 대외정책의 새로운 경향과 자유주의 패러다임의 접근”, 『國際政治論叢』제46집 1호, 2006.

연현식. “러시아 연방의 대외정책 변화에 대한 小考”,『國際政治論叢』제35집 1호, 1995.

백준기,“푸찐정부의 현실주의 외교노선과 강한 국가”, 『중소연구』24권 3호, 2000.

신범식. “한・러 수교 10년의 평가와 전망-사회・문화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학술세미나 발표논문집, 2000.9.

김창진. “한・러 문화 예술교류 현황과 전망”, 경희대학교 한・ 러 수교 10주년 기념 학술회의 발표문, 2000.10.

박재근, “러시아 대중문화예술에 대한 연구”,『무용학회논문집』, 통권 제24호 (1998).

김교빈, “문화원형의 개념과 활용”,『인문콘텐츠』, Vol 6, (2005).

김영근. “문화의 개념에 관한 체계적 고찰-문화인간학적인 측면에서의 고찰”, 연세대학교 대학원(1983)

이철. “러시아 농민공동체의 역사적 의미”,『스라브연구』, 제2권, 한국외대 소련 및 동구문제연구소, (1984).

조호연. “경남지역과 러시아의 문화교류 개선 방안”,『경남지역문제연구원 연구총서』Vol.7, (2003).

김진학, 김현종. “러시아의 문화적 특징에 관한 고찰”, 통상연구,Vol.1 No.1, (1997).

김우승. “러시아의 신흥자본가 집단과 시민사회의 문제”,『러시아연구』, (1994.12).

김희영. “프랑스의 창작진흥정책”, 『프랑스학연구』, (1995).

정준성. “국제문화교류 측면에서 본 대외 문화정책의 성찰과 과제”,『문화정책논총-제7집』,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5).

이순녀. “참여정부의 문화예술지원정책 연구-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8)

국회문화관광위원회. “동북아시아 문화교류 협력 방안 연구”, 한국문화정책연구소, (2003).

Kimiko Otani. “한국정부 국제문화교류활동의 성격:한국국제교류재단을 중심으로(1991-2001)”,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3).

이종진. “한 · 러 문화교류의 변화와 전망”, 『동서온로-제5집』,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커뮤니케이션연구회, (1994).

홍현익. “한 · 러 외교관계 변화 과정과 향후 협력 방안”, 『한 · 러관계 사료

집 1990-2003』,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박태규. “러시아 한류에 관한 연구조사 및 진흥방안”, (서울 : 국회문화관광위원회, 2005).

이인호. “한 · 러 문화교류의 의의와 과제”, 『지역경제』, (1995)

양진성. “한국과 미국의 문화간 커뮤니케이션 갈등에 관한 연구-Hofstede의 문화표현모델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3).

정갑영. “국제교류는 우리 문화의 생존, 우리의 삶과 직결-우리나라 문화예술교류 활성화와 해외문화원의 역할”, 『문화예술』, 한국문화예술진흥원, (2001).

구광모. “문화/문화예술/문예 : 정책적 개념차이 비교”, 『중앙행정논집』, (1997).

성태규,문희철,정연정. “충청남도 국제교류 활성화방안 연구”, 『충남발전연구원』, (2006).

박영애.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이후 한 · 중 문화교류 활성화 방안연구-공연예술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4).

황성준. “러시아, 러시아인 그리고 新 러시아인”,『HRI 포럼』, 현대경제사회연구소, (1994).

박문신. “하바로프스크에서 본 러시아”,『극동문제』, 극동문제연구소, (1996).

류지원. “문화 컨텐트 산업과 예술의 역할”, 서울대학교 예술문화연구소, (2001).

이상경. “러시아의 세계화 정책-세계화 추진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6).

오원교, “신유라시아주의-세계화 시대의 러시아적 대안 문화론”, 『슬라브학보』 제20권 1호, 2004.

-국외자료-

Paul R. Viotti and Mark V. Kauppi.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third edition. Needham Heights, MA:Allyn and Bacon, 1999.

Barbara, Valeri. “The History of Russian Ballet”. Moscow:Novosti, 1998

Gabovich. “The Bolshoi Ballet History”. London:World of Art,1959.

Cyril, Beaumount. “A History of Ballet in Russia”. New York:Doner Inc, 1978.

Richard Gregor. “Party policy in the Sphere of Literature”. Resolutions & Decisions of the 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 V vols, vol. 11. Toronto: Univ, press, 1987.

Schuster, J.M.D. “Sopporting the Arts : An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A Report for the National Endownment for the Arts, 1985.

Андрей Флиер. “О новой культурной политике России”. МГУ, 1994.

В. Соловей . “Современный русский национализм : идей но-политичес кая классификация ”. 1992.5.

Springer Netherlands. Роль теории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ной зоны Н.С. Трубе цкого в исследовании парных слов”. 『Russian Linguistics』, Vol. 29 No. 1, 2005.

Лухачев Д.С. “Раздумья о России”, (Сант-петербург, 1999).

- Internet Web Site -

한국지방자치국제화재단 http://www.klafir.or.kr
한러교류협회 http://www.koruss.org.
국정홍보청(현 문화체육관광부) http://www.mcst.go.kr
한국국제교류재단 http://www.kf.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러시아연방문화부 http://www.mkmk.ru

부록

## *1.*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 연방 정부간의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1992년 11월 19일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 연방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문화 · 과학 · 교육 · 정보 · 체육 등의 분야에서 양국간의 협력을 고양시켜 대한민국과 러시아 연방 국민간의 상호 이해와 우호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를 희망하고,

다양한 협력을 통하여 개인간의 직접 접촉과 국민, 사상 및 문화적 가치의 자유로운 이동에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하며,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의 문화유산에 대한 상호 인식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체약당사자는 상호성과 호혜의 원칙 하에 그들 국가 안에서 유요한 현행 법령에 따라 문화협력의 발전을 촉진하고 장려한다.

제2조

1. 체약당사자는 양국의 문화 · 교육 · 정보 · 연구단체 및 기관들간의 긴밀한 협력을 장려한다
2. 체약당사자는 양국의 지역 및 지방 차원의 직접교류와 문화협력 발전을 촉진시킨다.

제3조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국의 문학 · 연극 · 음악 · 미술 · 공예 및 기타 문화활동에 관한 지식을 특히 다음 방법을 통하여 증진시킨다.

가. 공연가 · 작가 · 언론 및 대중매체 전문가 · 작곡가 · 예술가 · 건축가와 기타 창조적 활동에 종사하는 인사들의 방문교환

나. 창조적 활동에 종사하는 단체, 예술인협회 및 문화기관간의 접촉 확립

다. 강의, 세미나, 모임, 회의의 주선

라. 축제, 전시회, 음악회, 연극공연의 조직

마. 출판물, 언론 제작물, 문화계 인사의 기고문 교환

제4조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 영역 내에서 타방체약당사자의 서적 · 간행물과 기타 출판물의 보급 확대를 장려한다. 체약당사자는 특히 서적의 합동출판, 전문가 교환, 서적 전시회 개최 및 그들의 영역 내에서 개최되는 서적박람회의 상호 참가를 통하여 서적출판 및 보급에서의 협력을 장려한다.

제5조

1. 체약당사자는 고등교육 및 직업교육 분야에서의 협력을 특히 다음 방법을 통하여 증진 · 발전시킨다.

가. 교습 및 교육제도를 익히고, 수업 및 강의를 실시하기 위한 교수, 교사 및 기타 전문가의 교환

나. 교육, 훈련 및 과학연구를 위한 학생, 대학원생 및 과학자의 교환

다. 대학 및 기타 고등교육기관에서 타방국의 언어, 문학 및 역사에 관한 학과 및 강의의 설치

라. 교육방법 관련서적, 훈련교본 및 시각 보조 학습기구의 교환

2. 체약당사자는 교육 분야에서 체결된 약정 또는 부속의정서에 의하여, 대한민국 교육부와 러시아연방의 과학, 고등교육 및 기술정책부의 고등교육위원회간의 협력을 유지한다.

제6조

각 체약당사자는 상호주의 하에 자국 안의 관련당국과 기관이 타방국의 국민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자국 안에서의 면학과 과학연구에 적합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7조

체약당사자는 타방국의 권한 있는 교육기관에서 발급하거나 수여한 학위 · 수료증 및 기타 증명의 상호 동등성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이들 증명서의 상호인정 문제를 연구한다.

제8조

체약당사자는 상호 저작권 보호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특히 양국의 관련 단체간의 약정 체결과 전문가, 입법정보 및 실제경험의 교환을 통하여 저작권분야에서의 협력 · 발전을 장려한다. 체약당사자는 타방국의 국민 또는 단체에 의하여 제작된 문학 · 음악 · 예술 또는 과학 작품의 번역 · 복제 · 출판을 촉진시킨다.

제9조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국의 국민에게 도서관 · 박물관 · 미술관 · 문서보존소 · 문서발간소 및 기타 이 협정과 일치되는 목적을 위한 문화 · 과학 및 교육기관에의 접근을 자국 안에서 확립된 관행에 따라 제공한다.

제10조

각 체약당사자는 상호주의 하에 타방체약당사자의 문화 및 예술 유산의 보존, 복구 및 이용분야에서의 지원을 제공한다.

제11조

체약당사자는 관련 국제협약과 그들의 국내법에 따라 각 체약당사자의 문화재의 불법유입, 유출 및 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소유자에 대한 문화재 반환과 관련한 정보의 교환 및 조치 강구에 관해 그들의 권한 있는 기관간의 협력을 보장한다.

第12조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민이 타방국에 관해 정확하고 확실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타방국의 역사, 지리 및 문화의 객관적 전달과 타방국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배포에 적절한 배려를 한다.

第13조

각 체약당사자는 상호 영역 안에 영주하는 한국계 또는 러시아계 국민들이 각자 그들의 언어, 문화 및 전통을 보존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자국법에 따라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第14조

각 체약당사자는 체약당사자간에 합의된 조건하에 현행 법령에 따라 각자의 영역 안에서 타방국 문화기관의 설립 및 운영을 장려한다.

체약당사자는 특히 양국의 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를 더욱 증진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협회 또는 친선단체의 조직 등 현지의 자발적 활동을 서로 장려한다.

第15조

각 체약당사자는 업무상 접촉의 확립을 포함하여 언론분야에서의 양국 단체간의 협력과 교류를 장려하고 타방국 언론인들의 직업적 활동을 용이하게 한다.

第16조

체약당사자는 특히 다음 방법을 통해 텔레비전과 라이도 방송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을 장려한다.

가. 텔레비전과 라디오 프로그램의 교환

나. 텔레비전과 라디오 작품의 공동 제작

다.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텔레비전과 라디오 작품을 제작하는 일방체약 당사자에 대한 협조 제공

라.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분야에 종사하는 대표단과 개인적인 전문가의 교환

제17조

체약당사자는 다음 방법을 통해 영화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증진시킨다.

가. 상호주의 하에, 타방국에서 제작된 영화의 영화제 및 시사회 조직

나. 장편영화, 기록영화, 뉴스 필름의 교류 실시

다. 영화의 공동제작

라. 타방당사자 영역 안에서 영화 및 영화 형식의 작품을 제작하는 일방당사자 지원

마. 영화분야에서의 대표단과 개인적인 전문가의 교류

바. 타방국에서 개최되는 국제영화제의 참가

제18조

체약당사자는 양국 청소년 및 청소년단체간의 협력 및 교류를 장려한다.

제19조

체약당사자는 체육대표단, 코치 및 전문가의 교류 실시를 통하여 체육단체, 연맹, 단체 및 동호회간의 체육 분야에서의 협력을 장려한다. 체육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접촉형태와 양식은 그들의 관련 단체 간에 체결될 약정에 따른다.

제20조

체약당사자는 양국 국민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양국간 관광의 발전을 장려한다.

제21조

각 체약당사자는 국내법에 따라 각자의 영역에 장비를 도입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 협정의 조항들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이 협정상의 모든 교류에 유리한 여건을 제공한다.

제22조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에서 규정된 협력과 교류에 관한 조치를 체약당사자에게 권고하고, 상호주의원칙 하에 문화적 · 과학적 협력에 관한 양국 정부간 계획을 발전시키며, 이 계획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어도 매 2년마다 대한민국과 러시아 연방에서 교대로 개최되는 문화관계에 관한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第23조

이 협정은 서명 후 30일이 되는 날에 발효하며, 일방체약당사자가 타방체약당사자에게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 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키려는 의사를 문서로 통보하는 날부터 6월까지 유효하다.

이 조의 상기규정에 의하여 이 협정이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에 의하여 착수되었으나 이 협정의 종료 시까지 완료되지 아니한 모든 계획 · 교류 · 약정 또는 사업에 관하여 이 협정은 유효하다.

1992년 11월 19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러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 | |
|---|---|
|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 이상옥 (외무부장관) |
| 러시아 연방 정부를 위하여 | 안드레이 코지레프 (외무부장관) |

# ABSTRACT

## *Assignment of culture exchange and cooperation way research between the South Korea and the Russia*

Ji seung hee
Advisor : Prof. Kim su-hee Ph.D.
Department of Russian Studies,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We are living in the era of new liberalism of the 21st century in which freedom, peace and prosperity have become the highest values. In this context, we have to reinforce the relationship with neighboring four powerful countries to realize universal values of human beings and reorganization of our relations with Russia and China is required.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cultural exchanges targeting reinforced relationship between our country and Russia and improved cooperation and based on the results, it is to develop a future plan on it.

There have been cultural exchanges between Korea and Russia for more than 15 years. Since friendship was contracted in 1991, there have been many cultural exchanges, but we do not know Russia and its people very well. Many people in our country still consider Russia as a cold country and Russian women as just beautiful. So, effort to understand and identify Russia are required as soon as possible, and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Russia as a community where we can live together with the spirit of new liberalism beyond obtaining simple interests through exchanges.

Based on the idea that soft power is the best way to reinforce national power in the 21st century, this study is to recognize importance of culture and its expansion as a means for interdependent relation with friendship contract in 1991 and cultural agreement in 1992 where Korea and Russia can be a single true community. And it is to identify patterns of cultural exchanges of the two countries through speculating the current status, point out its problems, find our future task for development of cultural exchanges, and develop plans on future exchanges.

At present, the two countries have faced lack of cultural understanding though more than 10 years have passed since friendship was contracted. It is sure that the problems can be overcome through bilateral efforts for cultural exchanges, consistent excavation of materials for cultural exchanges, development of cultural exchange models and programs.

In the future, to further friendship between two countries, we should recognize existing problems and make joint effort based on the principle of reciprocal equality. We can expect interdependent relationship to be developed in aspects of economy and technology as well as culture by understanding mutual cultures and developing sympathy. And by focusing on realization and maintenance of equality and order at international community, we can develop dependent relationship based on true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and be true partners of cultural exchanges.